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려 중기 居士佛敎와 禪宗의  
부흥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李 韓 娜

2018년 2월

고려 중기 居士佛敎와 禪宗의  
부흥 연구

지도교수 전 영 준

이 한 나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이한나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7년 12월

**A Study on Householder Buddhism and the Revival  
of the Zen School in the mid-Goryeo Period**

LEE HAN NA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7. 1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Householder Buddhism and the Revival of the  
Zen School in the mid-Goryeo Period**

During the mid-Goryeo period, social confusion increased as dominant aristocrats in collusion with the kingship gained control over the Goryeo society on the whole. The dominant aristocracy, which became mature over the period of King Hyeonjong's and King Munjong's reign, gradually began to show its inherent contradiction during the period of King Yejong's and King Injong's reign. This destroyed the social system formed at the beginning of the Goryeo dynasty, which signaled a change in the overall society. This change of the social system led to the change of ideological system beyond merely political transformation.

As the contradictions of the Goryeo society deepened, some aristocrats began and tended to criticize and reflect on the aristocracy they enjoyed and the systemic contradictions. In other words, a new trend of thought of Householder Buddhism emerged. Householder Buddhism was not an orthodox denomination such as the doctrinal school or the Zen school, but it had characteristics that were not found in the traditional Buddhist system. The main figures of Householder Buddhism included some of the dominant aristocrats, who deeply indulged in Buddhism. They were Confucian scholars and Buddhists at the same time, who stayed home, rather than having left home. They maintained close relations with not only many Buddhists but also Taoist forces that were active at that time. This made Householder Buddhism assume a secluded and self-reflective aspect. Householder Buddhism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Zen meditation and Zen practice, which suggests that it was close to the Zen school. Householder Buddhism was popular among dominant aristocrats at that time. There was a growing interest in the Zen school, which was weakened by the power of the doctrinal school. There was also a trend of Zen practice popular among dominant aristocrats, although it was limited. The trend of Zen practice has a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was the foundation upon which the Zen school in line

with Suseonsa (or an innovative Buddhist association) could emerge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military regime.

As the dominant aristocracy fell and a military regime appeared, Buddhism was reorganized accordingly. As the doctrinal school had a privilege, in collusion with the royal family and the aristocracy, there was a need for the Zen school, instead of the doctrinal school in Gaegyeong that was connected with the dominant aristocracy, in order to stabilize the military regime. Eventually, the doctrinal school, which started to weaken during the military regime period, was decisively hit during the period of Choi Chung-heon's rule and excluded from political circles. While prevailing over the doctrinal school, the Zen school began to strengthen its force through bond with Choi clan's regime. Thereafter, the military regime's support for the Zen school led to the activities of Buddhist associations represented by Suseonsa of Jinul and Baengnyeonsa of Yosei. Established by Jinul, Suseonsa started to gain the status as Temple Gate in terms of an outward form,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Jogye Order.

Jogye Order existed before as a sect of the Zen school, rather than being established by Jinul. As it was connected with some aristocrats, who led Householder Buddhism, in the process of keeping its slender existence, it could be revived during the military regime period. Unlike the doctrinal school, which was secularized through collusion with the royal family and dominant aristocrats, it tended to pioneer a unique world of mountain or local Buddhism. This was an important factor that helped Jogye Order connect to the military regime. In short, it can be seen that the establishment of Jogye Order was continuously affected by the leading figures of Householder Buddhism interacting with Sagul Temple Gate monks, and Dharma lineage and ideas of the Zen school related to Suseonsa.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내용 .....	4
II. 고려 중기 사회의 변화와居士佛敎의 등장 .....	9
1. 고려 중기 정치·불교계의 흐름과 변화 .....	9
2. 居士佛敎의 등장배경과 주도 인물 .....	13
III. 거사불교의 주요 인물과 交遊 .....	24
1. 유교계의 주요 인물과 교유 .....	24
2. 불교계의 주요 인물과 교유 .....	30
3. 도교계의 주요 인물과 교유 .....	38
IV. 거사불교의 확산과 禪宗의 復興 .....	43
1. 거사불교의 확대와 禪宗界의 躍進 .....	43
2. 무신정권의 등장과 불교계의 변화 .....	45
3. 曹溪宗 성립에 끼친 거사불교의 영향 .....	51
V. 결론 .....	56
참고문헌 .....	60

## <그림 차례>

<그림 1, 거사불교의 주요 인물과 사상적 연계도> ..... 17

## I. 서론

### 1. 연구 목적

고려 중기는 왕권과 결탁한 문벌귀족들이 고려사회를 전반적으로 장악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였다. 동시에 이들과 결합하여 고려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불교계 역시 폐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 속에서 예종대(1468~1469)에 이르러 귀족사회 내부에서는 지배체제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갈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세속과 거리를 두는 새로운 모습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종파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불교가 등장한 것이다. 정치계와 종교계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고려사회에서 새로운 사상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사회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벌귀족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르는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려 초기부터 진행되어 온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려 문벌귀족사회는 광종에서부터 현종 때까지 정치체제가 골격을 이루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태조(918~943)의 호족연합정책과 달리 광종(943~945)은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유형의 제도적 장치를 정비했다. 동시에 왕권에 대적하는 개국공신세력이나 호족세력 등의 숙청작업을 통해 지방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중앙집권화를 꾀했는데, 여기에 사원세력의 지지가 있었다. 또한 후일 이것이 불교계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이후 고려의 제도들은 성종대 거의 정비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종대 전시과체제의 시행부터 성종대를 거쳐 현종대에 일단락되었다.<sup>1)</sup> 성종(981~997)은 즉위 후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고 고려사회를 유교중심의 중앙집권적체제로 정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유교적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방호족의 자제를 교육하고 관리로 등용하였다. 결국 이러한 세력들이 문벌귀족으로 형성되었고 혼인정책으로 귀족세력을 확장하였다. 특히 왕실과의 通婚을 통해 명문세족들이 형성되었다.<sup>2)</sup> 또

1) 김두진, 『고려사상사 산책』, 2009, 69쪽.

한 성종대 마련된 蔭敍制는 이들의 특권을 지지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성종대는 대내외적으로 국가정비를 하였으며 왕권과 귀족관료들이 권력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원만하게 정사를 펴 나가는 귀족정치 형태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성종의 유교주의를 지향하는 왕권정치와, 그가 수용한 최승로의 시무 28조<sup>3)</sup> 등의 내용을 토대로 확인이 가능하며, 고려의 귀족적 성향이 왕권과 국가체제가 정비와 함께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뒤이어 현종(1010~1031)은 이전시기의 정치체제를 추구하고 왕권확립을 유교적 입장을 취했다. 현종대에는 이전 시기부터 이루어지던 제도들이 정비되었고 왕권과 지방호족들이 타협함으로써 문벌귀족사회가 자리 잡았다. 뒤이어 문종(1046~1083)은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를 거쳐 경정전시과를 완비함으로써 문무양반의 경제적 토대를 상대적으로 우대해 주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문벌귀족사회가 확립되는데 바탕이 되었다.<sup>4)</sup>

고려 사회가 문벌귀족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한편 불교계 역시 정치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려 사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쳤다. 고려 불교는 건국 이후 태조(918~943)의 崇佛政策으로 그 방향이 설정되었다. 태조는 각 종파의 승려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sup>5)</sup> 선종뿐 아니라 교종, 그리고 이에 흡수된 풍수도참 역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비록 성종대에 崔承老의 등장으로 불교행사가 억압되는 등의 儒學中心의인 정책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왕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불교는 국교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때문에 국초의 불교는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정권의 안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광종(943~945) 이후 불교계의 변화는 선종을 대신하여 왕실에서 후원하던 화엄종과 대표적 문벌귀족인 仁州 李氏(慶源 李氏)<sup>6)</sup>가 후원하던 法相宗 등의 교종세력

2) 박용운, 『고려시대사』상, 일지사, 1985, 82쪽; 경원이씨를 포함해 안산 김씨·경주 김씨·해주 최씨·경주 최씨·이천 서씨·파평 윤씨·평산 박씨·철원 최씨·영암 김씨·전주 유씨·청주 한씨·직산 최씨·고암 허씨·개성 왕씨 등을 들 수 있다.  
3) 이기백 외 공저, 『최승로와 그의 정치사상』, 『崔承老上書文研究』, 일조각, 1993, 163-174쪽; 6顯品 출신의 유학자 최승로는 상서문을 통해서 역대 왕의 정치를 포괄하고, 불교계단 비판과 자신이 생각하는 유교적인 군주상에 대해 건의하였다. 또한 자신들을 위한 세력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이것이 중앙집권적 귀족사회의 실현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4)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3, 214-215쪽.  
5) 김두진, 『왕건의 승려결합과 그 의도』, 『한국학논의』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81.  
6) 이자현의 본관은 인주 이씨 또는 경원 이씨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인주이씨를 사용하겠지만,

이 주도하였다. 이것은 당시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眞殿寺院과 개인 願堂의 난립을 가져왔고, 문벌귀족과 결탁되어 있던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이 시기의 불교계는 정치세력을 배경으로 무리하게 교단의 확장을 시도하면서 부패를 가속화하였고, 왕실·문벌귀족과의 결탁 속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귀족들은 재산도피나 정권싸움의 수단으로 원당이나 사원들을 활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불교계는 사회경제적 모순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불교의 대중화 작업도 수행하지 못하였다.<sup>7)</sup>

한편, 宋에서 귀국한 大覺國師 義天은 海東天台宗을 개창하여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아우르는 종교계의 융합을 시도하였다.<sup>8)</sup> 그는 이를 통해 문벌귀족에 의해 장악되고 있던 고려왕실을 바로잡고 왕권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시 사회와 불교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사회의 모순에 대해 반성적인 경향을 보이던 일부 귀족들은 불교사상에 대한 천착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居士佛敎를 주도하기 시작하였고, 무신정권기에 이르러서는 새롭게 부흥하는 선종의 등장을 촉발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거사불교에 관한 기록은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文選』 등의 여러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사불교의 중요 인물로 일컫는 이자현과 尹彦頤, 郭與, 李顛 등은 고려 중기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자현은 대표적인 문벌귀족인 인주이씨 李子淵의 손자이다. 그는 관직과 부귀를 버리고 淸平山 文殊院에 들어가 스스로를 청평거사라 칭하며 참선하였다.<sup>9)</sup> 이자현의 수행 과정을 통하여 거사불교의 성격을 일부나마 짐작할 수 있는데,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도가적 성격을 띠는 등 은둔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거사불교가 일반대중에게 적극적인 포교를 띠는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체제와 현실을 반성하는 경향은 확인 가능하다. 즉 거사불교가 등장하여 당시 일부 문벌귀족들 사이에 유행하였다는 사실은 교종의 교세에 늘었던 선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제한적이긴 하나 문신귀족 사이에서 유행하였던

간혹 경원이씨로 소개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둔다.  
7) 최병현, 『대각국사 의천의 화엄사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8) 김두진, 앞의 책, 2009, 220쪽.  
9) 『高麗史』 卷95, 列傳, 卷第8, 諸臣, 李子淵. “李資玄, 字眞精, 容貌魁偉, 性聰敏. 登第爲大樂署丞, 忽棄官, 入春州淸平山. 嘗文殊院居之, 蔬食布衣, 以禪道自樂.”

선 수행 풍조는 무신정권 성립 이후 修禪社 계통의 선종이 부각될 수 있는 토대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sup>10)</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벌귀족들의 권력이 절정을 이룬 후 점차 증가하고 있었던 문벌귀족사회의 모순과 무신정권에 의해 쇠퇴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자체적인 모순을 반성하는 거사불교의 등장을 살펴보고, 연계하여 무신정권기 불교계의 결사운동과 조계종 성립까지의 사상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고려 중기 사회와 불교계의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던 거사불교의 흐름이 새롭게 등장하는 선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상계의 변화가 고려사회의 주도세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문벌귀족의 모순이 드러내던 시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거사불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고려 중기 사회의 모순에 대해 내부로부터의 반성과 자각을 이끌어냈던 동력은 무엇이었는가에 중심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불교계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거사불교가 당대 문벌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사실은, 고려 건국에 기여하였던 선종의 사상적 특징을 되짚어내고 사상계의 변화를 촉발시키는데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내용

거사불교를 다룬 선행 연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몇 가지의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거사불교가 고려 중기 불교계에 등장할 수 있던 배경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김두진은 거사불교의 등장을 고려 중기 정치계의 흐름과 연결지어 살펴보았다. 즉, 왕실을 압도하고 권력을 독점한 문벌귀족사회의 모순을 염려한 결과라 보았다.<sup>11)</sup> 한편 고려의 거사선이 등장한 배경을 北宋 사상계와의 교류를 통

10) 조명제, 「고려후기 계한해 능엄경의 성행과 사상사적 의미」, 『부대사학』12,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8.

11) 김두진, 앞의 책, 2009.

해 바라본 연구가 있다.<sup>12)</sup> 즉 능엄경과 禪語錄을 중시한 이자현을 통해 고려의 선종계가 북송 임제종과의 교류를 반영하고 있음을 주목한 것이다.

당대의 문인들이 북송 사상계의 동향에 민감했던 만큼 그 시기 북송 사대부불교에서 성행하던 선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을 고려해야 하며, 고려 전체의 사상사는 북송과의 교류를 통해 맥락을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형성된 거사불교가 이후 수선사의 등장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北宋의 사상계가 고려 사상계의 흐름 속에 점하고 있는 위치를 파악했다.<sup>13)</sup>

두 번째로 거사불교가 가지고 있던 성격과 고려 중기사회에서 나타난 의미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서경수는 거사와 거사불교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들 거사들은 철저하게 개인적, 자기만족과 위안을 위한 불교신앙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구제나 위안을 위해 공부하는 특징을 언급하며 거사불교의 성격을 규정하였다.<sup>14)</sup> 한편 거사불교의 도가적 성격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이자현의 참선중심의 수행에서 도교와 불교의 융합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개인적인 수행의 형태를 중요시하면서, 동시에 은둔적이며 일반대중의 현실을 외면하는 도가와 융합된 성격이 있음을 밝혔다.<sup>15)</sup>

이에 반하여 거사들의 수행방법에 있어 선 수행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에도 이들의 성격은 교종불교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sup>16)</sup> 그리고 이자현과 惠素學一坦然 등의 사상은 楞嚴禪이며, 의천의 천태종 창립 이후 미약해진 선종세력이 다시금 부흥하게 된 이유 역시 능엄선이었음을 지적하면서 거사불교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sup>17)</sup> 또한 능엄경을 중시한 이자현의 선사상을 능엄선이라 규명하면서 불교와 도교의 융합적인 모습에 주목하여 능엄선을 한국적인 선으로 규정하고 이자현의 사상이 고려 중기의

12) 신규탁, 「고려 중기 거사불교와 이자현의 선사상」, 『강원문화연구』23,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4.

13) 조명제, 「고려 중기 거사선의 사상적 경향」, 『한국선학』4, 한국선학회, 2002; 「고려 중기 거사선의 사상적 경향과 간화선 수용의 기반」, 『역사와 경계』44, 부산경남사학회, 2002.

14) 서경수, 「고려의 거사불교」, 『한국불교사상사-승산 박길진박사 화갑기념논총』, 승산 박길진 박사 화갑기념 사업회, 1975. '거사란 출가자가 아닌 제가자이며, 출신가문이 훌륭하고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재가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修行·精進하는 사람이라 정의하였다.

15) 최병현, 「고려 중기 이자현의 선과 불교의 성격」, 『김철준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김철준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간행준비위원회, 지식산업사, 1983.

16) 김두진, 『고려시대사상사 산책』, 국민대학교출판부, 2009.

17) 허홍식, 「고려 중기 선종의 부흥과 간화선의 전개」, 『규장각』6, 1982;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대표적인 선사상임을 강조하는 연구이다.<sup>18)</sup>

한편, 기존의 입장은 달리 고려 중기 불교계를 특정 선문이 주도하였다는 시각의 연구가 있다. 즉 고려 중기 선종계의 주류는 거사불교가 아닌 關嶽山派가 중심이며, 이는 수선사 태동과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또한 이자현에게 禪教融合의 인 사상이 있다는 점은 동의할 수 없으며, 이자현의 사상을 고려후기 太古普愚나 懶翁慧勤의 출현을 알리는 看話禪의 여명으로 살펴보는 등 이자현의 선사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다.<sup>19)</sup>

세 번째로는 거사불교의 대표인물과 他宗敎人, 정치세력과의 교류를 연구한 성과들이 있다. 김홍삼은 그의 연구에서 청평사의 공간적 특징과 이를 통해 바라본 거사선의 성격을 비롯해, 이자현이 관계를 맺던 이들을 살펴봄으로써 고려 중기 정치세력의 결집 원인에 주목했다.<sup>20)</sup> 그는 고려 중기 혼인, 친족적 유대 이외에도 지역적 유대, 비슷한 교육 배경 및 각자의 사상 등에 따른 입장과 이해관계에 의한 관계에 주목하였다. 김병인은 거사불교의 주요인물 중 한명인 윤언이와 김부식의 대립을 사상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상황과 연결지어 살펴보았다.<sup>21)</sup> 그리고 고려시대의 대표적 문벌귀족 가문인 인주이씨의 여러 인물들의 불교경향을 기반으로 고려 중기 사회를 파악한 연구가 있다. 이를 통해 왕실과 문벌귀족세력이 화엄종, 법상종, 선종계열과 같은 불교세력과 끊임없이 관련되고 있음을 확인했다.<sup>22)</sup> 또한 화엄종의 의천, 법상종의 왕사 소현, 선종계에 이자현·담진·학일 등을 대표인물로 지목하여 각 종파의 성격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거사불교가 은둔생활 추구하면서도 의천이 들어온 능엄선을 중시하는 등 교선일치를 추구하는 성격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의천이 이자현에게 준 詩, 의천이 소현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詩 등을 통해 의천, 소현, 이자현이 교유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인주이씨가 숭상하던 법상종과 왕실이 중시 여겼던 화엄종간의 갈등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현과 의천의 친분 등을 통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즉, 각 계파별, 정치세력 사이에 경쟁관계가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교유했으며 배

18) 조용현, 「이자현의 능엄선 연구」, 『종교연구』12, 한국종교학회, 1996.

19) 김상영, 「고려예종대 선종의 부흥과 불교계의 변화」, 『청계사학』5, 청계사학회, 1988.

20) 김홍삼, 「청평사와 고려사회 구조」, 『강원문화연구』23,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4.

21) 김병인, 「김부식과 윤언이」, 『역사학연구』9, 전남사학회, 1995.

22) 김창현, 「고려 중기 인주이씨와 불교경향」, 『인문과학연구』25,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척하는 관계는 아니었음을 강조했다.<sup>23)</sup> 이외에도 이자현을 비롯한 고려 중기 대표적인 거사들로 언급되는 인물들은 이장용, 이승휴 등이며 이들이 추구했던 거사불교의 성격을 살핀 연구도 있다.<sup>24)</sup>

현재까지 연구된 고려 중기 거사불교에 관련된 연구 성과들은 대부분 이자현과 같은 대표적 인물과 그의 사상에 대한 성격을 살펴본 논고, 또는 고려 중기에 침체되었던 선종이 재부흥하게 된 시초로 여기고 이러한 의의를 살펴본 것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고려사회와 불교계가 밀접하게 흐름을 같이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벌귀족들의 권력독점 현상 등 귀족사회가 절정을 달하고 몰락하기까지의 과정을 사상계의 변화와 흐름을 통해서 함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불교계의 새로운 사상의 유행은 문벌귀족사회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이면서도 그 변화의 시작을 거사불교의 영향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거사불교라는 새로운 불교계의 사상을 통해 고려 정치계의 변화와 새로운 선종 계열인 조계종의 성립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완숙한 귀족적 성격을 지닌 고려 중기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거사불교의 성격과 역할을 파악하여, 문벌귀족의 몰락과 불교계의 結社運動이 曹溪宗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고려 중기 문벌귀족사회에서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왕권을 지키기 위한 예종의 정치적 의도 역시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즉, 기존의 문벌귀족세력, 이들과 결합되었던 교종세력이 아닌 다양한 사상계의 인물들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신진세력을 형성하고자 했던 예종의 정치적 입장과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상 간의 교류 속에서 등장할 수 있었던 거사불교의 성격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거사불교가 예고한 정치·사회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정치세력을 바탕으로 다시 부흥할 수 있었던 선종세력과 이들의 결사운동 속에서 하나의 종파로서 조계종이 성립될 수 있던 과정을 거사불교를 통해 풀어보고자 한다.

23) 이병욱, 「의천, 소현, 이자현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국종교사학연구』10, 한국종교사학회, 2002; 「의천 해동천태종의 기틀을 다지다」, 『인문로 보는 한국의 불교사상』, 한국불교원전연구회, 예문서원, 2004.

24) 강석근, 「거사불교의 관점에서 본 이규보의 행정과 문학」, 『동국어논집』7,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따라서 II장에서는 고려 중기 사회의 변화를 추적하여 원인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이를 위해 고려 중기 정치계와 불교계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거사불교의 흐름을 주도하였던 인물들의 사상과 교유 인물을 살펴볼 것이다. 당시 거사불교를 이끌었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문벌귀족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과 함께 불교·유교·도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드러냈던 인물들이며, 이들 각각은 독립된 세력이거나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유하면서 담론을 나누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고려 중기 사회와 불교계의 변화가 문벌귀족사회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거사불교의 주도인물과 연결되는 불교계, 유교계, 도교계의 주요 인물이 거사불교와 연결되는 맥락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상호 영향을 주었던 사상은 무엇이었으며, 고려 중기를 이끌었던 사상은 또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거사불교의 성격과 출현 배경 및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겠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거사불교의 등장과 문벌귀족사회의 모습으로 야기된 무신정변, 그리고 이후 무신정권과 불교계와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무신정권의 성립은 새로운 주도세력의 등장을 의미하지만,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종세력과의 연계는 상당한 장애가 있었다. 고려 중기까지 문벌귀족과 교종은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무신정권은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새롭게 찾아야 했다는 점이다. 무신정권이 설립하던 시기에 교종 세력의 조직적 대응이 있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무신정권은 거사불교와 그들의 영향을 받아 불교계의 자정을 주도하였던 사상 결사체에 주목하였고,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성립한 선종 계열의 조계종에 집중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무신정권이 주목한 조계종은 고려 후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상이라는 점에서 사상적 의미를 지니지만,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었던 거사불교의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거사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적 조류를 통해 문벌귀족사회에서 무신정권으로 변하는 정치·사상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사불교의 등장으로 촉진된 선종계의 부흥과 조계종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고려 중기 사회의 변화와居士佛敎의 등장

### 1. 고려 중기 정치·불교계의 흐름과 변화

고려 사회는 顯宗·文宗代를 걸치면서 가장 성숙한 귀족사회의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문벌귀족들의 세력이 강성해지고 고려사회를 장악함에 따라 여러 가지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문벌귀족들은 귀족들의 소유인 功蔭田 이외에도 外役田이나 軍人田을 매수하거나 빼앗아 그들의 토지를 넓혔다.<sup>25)</sup> 또한 과전 역시 사유화하였으며 자기 토지 내에 사원을 짓고 국가에 대한 조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경제력을 키웠다.<sup>26)</sup> 그 결과 고려 초부터 형성되었던 사회체제를 붕괴시키면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특히 고려 중기에 이르러 이러한 문벌귀족사회의 성격은 극에 달했다. 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예종(1105~1122)은 자신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세력 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측면에도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고 지지함으로써 사상계의 평형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숙종(1095~1105)의 뜻을 이어받아 여진정벌을 시도했으나 결국 동북 9성을 반환하게 되면서부터는 지나친 문치주의로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뒤이어 왕위에 오른 인종(1123~1146) 역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측근 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척이었던 이자겸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졌고 정치세력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자겸의 난을 유발시켰다. 이자겸의 난은 진압되었지만 이러한 고려사회의 모습은 누적되었다.<sup>27)</sup> 또한 이러한 모습은 뒤이어 묘청이나 무신들의 난으로 이어지는 한편, 지방 토착세력과 향리들의 자제가 중앙 진출 후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문벌귀족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했다.<sup>28)</sup>

25) 『高麗史』卷127, 列傳, 李資謙. “... 强奪人土田, 縱其僕隸, 掠車馬, 輸己物, 小民皆毀車, 賣牛馬, 道路騷然. 又欲知軍國事, 請王幸其第授策, 勒定時日, 事雖未就, 王頗惡之”

26) 김두진, 앞의 책, 2009, 87-88쪽.

27) 김창현, 「고려 중기 예종·인종의 통치와 관료집단의 성격」, 『한국인물사연구』8, 한국인물사연구회, 2007, 160쪽.

고려 정치계의 변동과 함께 왕실 및 문벌귀족들과 결탁하였던 고려 불교계의 사상적 변화도 불가피하였다. 불교를 국교로 삼은 고려사회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던 역할은 단순히 사상적인 부분을 넘어 정치·사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즉 불교계의 흐름은 정치세력과 사회적 변화에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 건국 이후부터 고려 중기까지의 불교 및 사상계의 동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 건국 초 太祖(918~943)는 각 계파의 승려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방 호족과의 결연을 의도하면서<sup>29)</sup> 불교 사상계의 융합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사상 융합의 배경에는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전승되어 온 불교의 여러 종파를 5교 9산이라 총칭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즉 法相宗·法性宗·涅槃宗·戒律宗·圓融宗 등의 5교와, 가지산·실상산·사굴산·동리산·사자산·성주산·회양산·봉림산·수미산 등의 9산 선문이다.<sup>30)</sup> 그러나 五教兩宗에 대한 해석에는 많은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숙종 때에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고, 무신집권기에 지눌이 조계종을 성립시킨 이후에 오교양종이 등장한다고 보는 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고려 중기 13세기에 이르러야 오교양종이라는 용어가 보이고 있으며, 1213년(강종 2) 崔忠獻이 志謙을 왕사로 추천하면서 양종오교라는 용어를 썼고, 1273년(원종 14) 賢聖寺에서 오교양종의 승려들을 모아 법회를 개최하였던 등의 사례가 있다.<sup>31)</sup> 열반종·계율종·법상종·법성종·원융종의 5교종과 선종의 천태 및 조계 양종을 오교양종이라고 한 설이 대체로 통설화되고 있다.

하지만 광종대(946~949)부터는 왕권 강화와 전제정치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불교계의 융합사상을 강조했는데 특히 교종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광종이 관심을 가지고 성립시킨 법안종이 화엄종을 중심으로 선종 사상을 융합하려 했다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선종세력은 지방으로 밀

려나게 되었고, 점차 교종세력이 고려사상계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인물은 법인국사 탄문이다. 탄문은 고려 태조 이후 광종 대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다. 광종대에는 왕·국사에 봉해졌으며 고려 초기에 왕실에 화엄종의 왕권강화를 위한 이념을 제공한 인물이다.<sup>32)</sup> 그는 말년에 화엄종 사찰이었던 普願寺에 머물렀으며 열반에 들었다.<sup>33)</sup> 보원사는 최치원의 「法藏和尚傳」에 의상을 계승한 華嚴十寺 중 하나라 언급되어 있어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탄문이 언급했다는 사실을 통해 사찰의 사세를 짐작할 수 있다.<sup>34)</sup>

또한 탄문이 보원사로 돌아가려했을 때 광종이 이를 차마 저지하지 못하고 徽號를 받들어 國師가 되기를 청했다.<sup>35)</sup> 이는 고려 왕실에서 탄문이 가지고 있던 위상과 더불어 화엄종이 주목받고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초기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세를 키워나갈 수 있었던 교종세력은 문벌 귀족 사회가 몰락하고 무신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 고려사회를 장악할 수 있었다.

현종(1010~1031) 역시 현화사를 창건하는 등 법상종을 적극 지원했으며 균여의 화엄사상은 후대에서 계승하며 화엄종 역시 번성했다.<sup>36)</sup> 이렇듯 현종대 이후 교종계의 화엄종과 법상종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불교세력이 문벌귀족과의 결탁 속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文宗代(1046~1083)에 이르러서는 고려의 승불과 불교의 생활화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 시기 각종 불교의식의 절차가 정해졌으며, 왕자들도 출가하여 왕실불교의 일단을 만들어 낼 정도였다. 이때의 사상계는 송과의 교류로 두드러지며 의천의 노력으로 불전의 수입과 사상의 수출이 활성화되었다.<sup>37)</sup> 그러나 이 시기 불교에 의한 여러 가지 특권 및 특혜, 각종 불교행사들이 절정을 이루던 모습이 지나치게 확장되면서 불교계의 폐단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7, 국사편찬위원회, 1974, 69쪽.

29) 김두진, 앞의 책, 2009, 57쪽.

30) 김영수, 「오교양종에 대하여」, 『진단학보』8, 1937, 178쪽, 계율종·법상종·법성종·원융종·천태종 등을 교종의 5종으로, 선적종 및 조계종을 선종의 양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천태종이 대두하자, 구산 선문이 통합된 선적종이 조계종으로 바뀌면서 천태종과 함께 양종을 이루어 오교양종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 두 견해 사이에는 선적종과 조계종의 동일 여부의 문제가 제기된다.

31)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卷35, 「故華藏寺住持 王師定印大禪師追封靜覺國師碑銘」, 「崇慶二年 康王即祚 循祖宗舊例 欲得釋門重望爲師 時晉康公當國 爲上遴選 凡於兩宗五教 求可以承當大任者 無出師右 遂以師薦焉」.

32) 『高麗史』卷2, 世家, 光宗 19年. “以僧惠居爲國師, 坦文爲王師”; 『高麗史』卷2, 世家, 光宗 25年 3月. “僧惠居死, 以坦文爲國師”

33) 최영성, 「譯註」海美 普願寺 法印國師 寶乘塔碑銘 并序, 『동양고전연구』22, 동양고전학회, 2005, 234쪽.

34) 최치원, 「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 『崔文昌侯全集』,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0, 242-283쪽. “海東華嚴大學之所有十山焉 中岳公山美理寺 南岳智理山 山是 朔州華山寺 良州金井山梵語寺 琵琶山玉泉寺 全州母海印寺國神寺 更有如漢州負兒山青潭寺也 此十餘所”

35) 최영성, 앞의 논문, 2005, 230쪽.

36) 『高麗史』卷4, 世家, 顯宗 9年 6月. “戊申 始創大慈恩玄化寺, 以資考妣冥福”

37)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3, 218-219쪽.

한편, 왕실 및 문벌귀족과 교종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고려 초의 불교계에서 미약하나마 선종세력도 교세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이렇듯 예종의 선종에 대한 관심은 선종이 위치를 잃어내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sup>38)</sup> 여러 기록으로 볼 때 예종(1105~1122) 역시 당시 고려 왕실, 문벌귀족과 마찬가지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선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는 예종이 교유·지원했던 인물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굴산문의 혜조국사 담진,<sup>39)</sup> 대감국사 탄연,<sup>40)</sup> 대선사 지인,<sup>41)</sup> 가지산문의 원응국사 학일<sup>42)</sup> 등을 지원하는 등 선종 계열의 고승들을 가까이 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가지산문의 학일은 의천의 천태종 개창 때에도 선종계의 입장을 고수하며 사세를 진작시키고자 노력하였고, 1129년(인종 7) 왕사에 책봉되었다. 사굴산문의 혜조국사 담진과 대감국사 탄연 역시 왕사와 국사로 책봉되는 등 사세를 유지하고 있었다.<sup>43)</sup> 특히 단속산에 있는 탄연의 비에는 ‘高麗國 曹溪宗 堀山下 斷俗寺大監國師’라고 쓰여 있어, 기록상으로 선종계에 처음으로 사굴산문이 조계종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고려의 9산문은 고려 초 광종대 무렵까진 흥성했지만, 이후 혜조국사 담진 또는 원응국사 학일이 등장할 때까지 침체를 거듭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 사굴산문과 가지산문 양 산문을 제외한 나머지 산문은 고려후기에 이르러 존재조차 알 수 없으며, 두 산문만이 고려시대 전 기간에 걸쳐 그 존속을 확인할 수 있다.<sup>44)</sup>

이렇듯 고려 중기 사회에서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은 교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데 반해 선종세력은 가지산문과 사굴산문이 중심으로 한 선종계에 고승들의

38) 김상영, 「고려 예종대 선승의 활동과 불교계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6, 27쪽.

39) 『高麗史』 卷12, 世家, 睿宗 2年 1月. “乙卯 御明慶殿, 以僧曇眞爲王師.”; 『高麗史』 卷13, 世家, 睿宗 9年 3月. “癸巳 王如奉恩寺, 以僧曇眞爲國師, 樂眞爲王師.”; 『高麗史』 卷14, 世家, 睿宗 11年 윤1月. “壬寅 幸普濟寺, 聽國師曇眞說禪, 賜施優厚”

40) 허홍식 편, 「丹城斷俗寺 大鑑國師碑」,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1984, 820-823쪽. “...肅王在藩邸雅聞其賢招致宮中俾侍世子不令一日離去世子即睿王也...睿王即政尤加愛重元...大師三年丁亥遷住開頓寺四年戊子加重大師十年甲午特授三重大師仍賜法服...”

41) 허홍식 편, 「智勒寺 廣智大禪師墓誌」,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1984, 763쪽. “...壬午夏六月二十六日薨於私第師生 而岐嶷不喜輩血體貌言音酷似 睿王睿王鍾愛 之年九歲命投慧紹國師祝髮學禪那法道機夙成...”

42) 허홍식 편, 「淸道 雲門寺 圓應國師碑」,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1984, 661-662쪽. “...宣和四年 上因疾召師於內殿欲拜爲王師師牢讓不受侍中金仁存等謂師曰 上欲以不臣禮事師久矣師之不受何也師不得已受命於是 上使行師拜然未及冊禮而登遐...”

43) 황인규, 「고려시대 조계종의 성립과 전개」, 『역사와 교육』17, 역사와 교육학회, 2013, 11-12쪽.

44) 황인규, 앞의 논문, 2013, 13쪽.

노력에 의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선승이 왕사와 국사로 책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종세력에 의해 장악된 선종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천태종 개창으로 오히려 선종 일부 세력이 흡수되는 모습이 보이는 등 침체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의천은 천태종의 개창을 통해 문벌귀족과 연합하여 고려사회를 장악한 불교계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했지만, 그 역시 왕실을 옹호하는 입장으로써 불교사상계를 교종 중심으로 개혁하고자 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고려 중기 사회의 불교계는 교종을 중심으로 변성하고 있었다. 즉 고려초기부터 왕실이 화엄종 세력과 결연되어 있었으며, 중기에는 문벌귀족가문들과의 결탁을 맺은 법상종 세력이 번성했다. 고려의 정치체제 및 제도의 시행과 함께 성장한 문벌귀족이 대두됨에 따라 이들과 결탁한 교종세력은 상당한 범위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건국 초의 선종은 약화되어 갔던 것이다. 특히 문종대부터는 문벌귀족의 후원을 바탕으로 한 불교계의 여러 가지 특권 및 특혜, 각종 불교행사들이 절정을 이루던 모습이 지나치게 확장되면서 불교계의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문벌귀족과 불교계의 일각에서는 거사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의 흐름이 등장했다. 즉 왕실과 문벌귀족들의 정치적인 모순 뿐 아니라 이들과 결탁한 교종세력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정치·종교계의 폐단에 대하여 일부 문인들의 반성이 시작되었다. 곧 현실정치를 피해 은거하며 반성적인 태도로 수행하는 모습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거사불교로, 교종·선종과 같은 정통종파는 아니며 기존의 불교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불교에 심취한 문벌귀족의 일부 세력이 중심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거사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된 원인에는 고려 중기 문벌귀족의 모순을 들 수 있다. 또한 거사불교의 등장 이후 침체되어 가던 선종이 재부흥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은 당시의 변화상에서 주목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2.居士佛敎의 등장배경과 주도인물

고려 중기 사회에서 문벌귀족들은 고려사회를 장악하는 역할과 함께 그들의 정치적 입장 뿐 아니라 일상적인 영역 역시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11세기 화엄종이 흥왕사를 중심으로, 법상종이 현화사를 중심으로 세력을 떨치는 등 교종세력이 전성기를 누리는 한편, 선종이 위축되는 실정이었다. 반면 宋에서는 교종이 쇠퇴하여 선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천태종과 도교가 유행하여 선종, 도교, 유학 간의 교류가 성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고려로 다시 영향을 미쳐 11세기말부터 12세기경에는 해동천태종이 개창되었고, 도가적 성향을 지닌 세력들이 성장하여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sup>45)</sup> 즉 고려 중기 교종 세력, 선종세력과는 또 다른 성격의 거사불교의 등장은 이러한 사상의 교류와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는 정치, 사회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거사불교는 당시 고려 중기를 주도하던 교종세력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자기반성적이며 은둔하는 수도생활을 택한다는 점이다. 사상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은 문벌귀족의 일원으로 기본적인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들이었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거사불교가 고려 중기 사회에 등장한 것은 당시의 정치적·종교적 모순으로 비롯된 것이었으나 사상적 특징을 갖추게 된 바탕에는 거사불교의 주요 인물들과 당시사회의 여러 종교, 정치적 인물들과의 교류 역시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거사불교가 형성될 수 있던 배경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교류했던 인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과 교류했던 불교세력들의 경우 당시 주류를 이루던 교종세력은 물론 선승들과도 교류가 있었다. 고려 중기의 선종계는 왕실 및 문벌귀족과 결탁한 교종세력에 의해 지방으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승들의 활동을 통해 선종세력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선승들이 왕사, 국사로 책봉되어지기도 했다. 국사, 왕사제도는 불교가 왕실을 포함한 통치권과 맺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sup>46)</sup> 이러한 사실을 통해 고려 중기부터 선종세력이 예

45) 김장현, 앞의 논문, 2004, 15쪽.

46) 심계룡 외, 『고려시대의 불교사상-한국철학자료집·불교편2』,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5쪽; 승과는 구족계를 받은 다음에 거치는 일종의 자격시험으로 승려의 직급인 승계를 결정한다. 시기에 따라 명칭과 역할에는 변화가 있으나 고려 전기에 확립된 승계는 아래와 같다.

[교종선] 夫德一大師一重大師一三重大師一首座一僧統  
[선종선] 夫德一大師一重大師一三重大師一禪師一大禪師

종의 지원하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사불교와의 교류를 통해 정치계는 물론 종교계의 변동을 예고했다.

거사불교의 주도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문벌귀족인 동시에 불교에 깊은 관심을 표하면서 도교세력과의 역시 깊은 교류를 하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 중기사회에서는 선종세력뿐만 아니라 도교계 인물들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고려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종의 왕권을 뒷받침할 신진세력 형성을 목적에 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비롯된 것이다.

예종의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宋에서 도교사상이 성행하던 사실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당시 송은 국력이 미약하여 북송과 남송이 모두 이민족의 위협을 받으며 내적으로는 농민들의 봉기가 빈번하였다. 통치자들은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도교를 숭상하였는데 북송의 황제들 대부분이 도교를 존승했지만 특히 眞宗(997~1022)과 徽宗(1110~1125)은 이에 대한 관심이 컸다. 진종의 경우 거란과의 굴욕적인 맹약 이후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상적 통치수단으로써 도교를 숭상하여 태산에서 봉선을 거행하였다. 이후 휘종의 경우 도교 숭배는 이전보다 더했다. 또한 그는 도교를 대단히 숭상하여 도교를 높이고 불교를 배척하는 교지를 내릴 정도였는데, “부처를 大覺金仙으로 개칭하고 보살·조사 등을 仙人·大夫로 칭할 것, 승려를 德士로 고치고 그 복식을 바꾸며 성씨를 부를 것, 절을 宮으로, 院을 觀으로 바꿀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으며 또한 女冠은 女道로, 비구니는 女德으로 개칭하도록 명하는 모습에서는 도교에 불교를 융합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sup>47)</sup>

결국 이러한 모습은 宋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고려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일찍부터 도교에 관심이 많았던 예종은 월례적으로 초제를 지내며 이후 1115년(예종10)에 고려의 대표적 도관인 복원궁이 건립했다.<sup>48)</sup> 고려사회에서 거행된 초제의 총 횟수는 191회에 달했다. 특히 예종, 의종대에 가장 많이 행해졌으며, 도관인 복원궁의 건립과 도사의 확보가 송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졌다.<sup>49)</sup> 북

47) 牟鍾鏗, 『중국도교사』, 이봉호역, 예문서원, 2017, 140-1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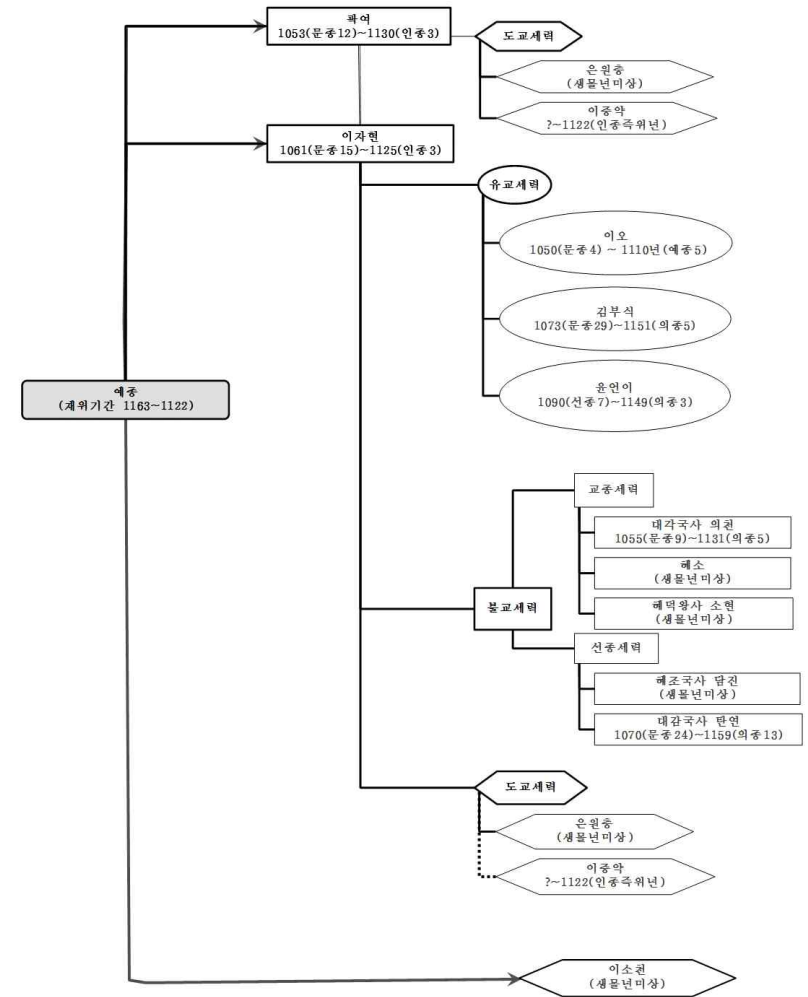
48) 『東文選』 65, 『逸齋記』:“…後航海入宋 從法師黃大忠, 周與齡 親傳道 要 玄關秘鑰 罔不洞釋 及還本國 上疏置玄館 以爲國家齋醮之福地 今福源宮是也 乃撞鴻鐘於 講席 廣開衆妙之門 而問道之士 填門成市 如衆 星之環天津也…”

원궁은 도교의 각종 재초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복원궁을 건립할 당시 北宋의 徽宗은 이를 돕기 위해 두 명의 도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sup>50)</sup> 즉 고려 사회에서 도교사상이 성행할 수 있던 배경에는 宋의 정치적·사상적 영향을 받은 예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종의 복원궁 건립은 단순히 문화적 욕구 또는 개인의 사상적 의도가 아닌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종은 도교사상의 이념을 통해 신진세력을 형성하고 기존 문벌귀족세력과 그들과 결탁되어있던 교종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예종의 사후 도교세력을 비롯한 예종의 측근세력들이 이자겸·김부식 등의 문신세력에 의해 몰락하는 정치적 양상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51)</sup>

이를 통해 거사불교는 다양한 사상들의 교류를 통해 형성될 수 있었으며, 그 배경에는 예종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다양한 사상의 인물들을 등용함으로써 왕권을 지지할 수 있는 신진세력을 형성하고자 한 예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거사불교 주도인물들과 각 사상계 인물들 간의 교류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거사불교는 교종과 선종세력과는 달리 다양한 사상의 교류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표를 중심으로 거사불교의 주도인물인 이자현과 광여의 사상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또한 유·불·도교계의 주요 인물들과의 교류가 끼친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사상의 등장이 고려사회의 어떠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림 1, 거사불교의 주요인물과 사상적 연계도>



<범례>

- 지원
- 직접 교류
- ..... 간접 교류

49) 정재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60쪽.  
 50) 徐兢, 『高麗圖經』, 권18, 道教條. “...大觀庚寅 天子眷彼遐方 願聞妙道 因遣信使 以羽流二人從行 遴擇通達教法者 以訓導之 王俱篤於信仰 政和中 始立福源觀 以奉高真道士十餘人 然晝處齋宮 夜歸私室 後因言官論列 稍加法禁 或聞便享國 日常有意授道家之籙 期以易胡教 其志未遂 若有所待然”  
 51) 정재서, 앞의 책, 2006, 116쪽.

1) 거사불교의 주도 인물

① 李資玄

이자현의 본관은 해주이며, 자는 眞情, 호는 息庵·淸平居士·希夷子이다. 그는 당대 최대문벌인 경원 이씨 출신으로 李子淵의 손자이며 李顥의 맏아들이다. 1083년(문종 37) 과거급제 이후 大樂署丞이 되었으나 관직에서 물러나 청평의 문수원에 거주하면서 스스로를 淸平居士라 칭하며 불법 연구와 參禪으로 생을 보냈다. 이후 예종이 사람을 시켜 茶香과 金帛을 보내어 여러 번 불렀으나 사양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1117년 예종이 南京에 행차하였을 때 왕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곧 다시 문수원에 들어가 은거했다.<sup>52)</sup>

당대 최고의 문벌귀족의 일원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가 속세에서 벗어나 은거생활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破閑集』에는 갑작스러운 妻의 죽음으로 인생무상을 느끼고 은거를 결심한 뒤 속세를 떠나 다시는 서울로 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기록이 있다.<sup>53)</sup> 기록에서와 같이 그가 개인적인 심적 변화로 인해 은거를 결심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당시 고려사회의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시켜 살펴 볼 여지가 있다. 당시는 정치계와 불교계 모두 심한 파벌이 전개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문종대부터 대두한 문벌귀족 세력 간의 파벌이 조장되어 권권싸움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결국 왕실과 해주이씨 세력의 갈등 속에서 1092년(선종 9)에 이자현이 정권을 독점하였다. 불교계에서는 왕실을 배경으로 하는 화엄종 홍왕사의 의천과 해주이씨를 배경으로 하는 법상종 현화사 소현의 대립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고려사회의 흐름에서 회의감을 느끼게 된 이자현은 개성을 정치적 대립의 장소로 여기고 정치적 갈등 및 정치활동에서 벗어나고자 은거를 택한 듯하다.<sup>54)</sup> 이러한 이유로 이자현의 사상에는 속세를 벗어나 자기 반성적이면서도 도가적인 은거 성향이 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2) 『高麗史』 卷95, 列傳, 諸臣, 李子淵 李資玄. “資玄 字眞精 容貌魁偉 性聰敏 登第爲大樂署丞 忽棄官入淸州淸平山 葺文殊院居之 蔬食布衣 以禪道自樂 睿宗遣內臣 賜茶·香·金·帛 累詔徵之 資玄曰 ‘臣始出都門 誓不復踐京華 不敢奉詔’ 遂上表曰 ‘以鳥養鳥 庶無鍾鼓之憂 觀魚知魚 俾遂江湖之性’ 王覽之 知不可致 幸南京 遣其弟尙書資德 諭赴行在 作詩手書賜之 資玄赴召…”

53) 이인로, 『破閑集』 卷中, 박성규 역, 보고사, 2012, 127~129쪽. “…年二十七仕至大樂署令, 忽致叩盆之患, 拂衣長往, 入淸平山葺文殊院以居之…”

54) 김홍삼, 앞의 논문, 2004, 110-111쪽.

이자현이 수행방법에 있어서 중요시 여겼던 것은 『楞嚴經』으로,<sup>55)</sup> 그의 사상 및 수행방법이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자현이 조사어록의 하나인 『雪峰語錄』을 읽다가 ‘천지가 모두 하나하나 눈인데 너는 어느 곳을 향해 웅크리고 앉아 있느냐’라는 대목에서 깨달음을 얻었다<sup>56)</sup>는 기록이 있다. 즉 이자현은 조사어록을 통해 깨우침의 체험을 이루었으며, 이것이 사상의 출발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頓悟, 즉 깨달음의 체험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능엄경』을 강조했다.<sup>57)</sup> 이러한 『능엄경』을 중시 경향으로 인해 고려 선종계는 『능엄경』에 주목하였고, 이는 고려 중기 불교계에 새로운 禪風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sup>58)</sup> 또한 그가 거처하던 문수원 인근의 堂이나 庵의 명칭 역시 『능엄경』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절 밖에 있는 다른 동리에 사사로 거처하는 집을 지었는데, 그 암자, 불당, 정자 등이 모두 10여 개소나 되었다. 불당은 문성이라 하고 암자는 견성 혹은 선동, 식암 등으로 각기 그 이름이 있다.”<sup>59)</sup>

이자현은 그가 머물던 文殊院의 불당을 聞性이라 하였으며 암자는 見性, 仙洞息庵 등으로 명명했다.<sup>60)</sup> 이러한 명칭은 능엄경과 관련이 있는데, 문성과 견성은 『능엄경』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이다.<sup>61)</sup> 또, 그가 지닌 불교사상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도가적 성향 역시 살펴야 한다. 당시 묘청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도교와 불교의 융합적인 사상 경향을 강하게 띠었는데, 문수원 은거와

55) 김승동, 『불교사전』, 민족사, 2011, 157쪽, 인도의 나란타사에서 秘藏하여 인도 이외의 나라에는 전하지 말라는 왕명에 의해 당나라 이전에는 중국 및 우리나라에 전래되지 않았다고도 하며, 당나라 般刺蜜帝 등이 705년(中宗 神龍 1)에 10권을 번역하여 유포했다는 경전이다. 이 경의 뜻은 ‘무한하게 크고 無上最極의 절대적인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가 되기 위해 닦는 보살들의 완전무결하고 견고무비한 육도만행의 수행법을 말한 경전’이라는 뜻이다. 이 경은 宋代부터 선의 중요한 경전으로 대두되었고 小華嚴經이라 불리면서 널리 독송되었던 이 경은 불교신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

56) 허홍식 편, 『眞樂公重修淸平山文殊院記』,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1984, 587쪽. 이 기문은 金富轍의 아우인 金富轍이 정리한 것이다(같은 책, 590쪽).

57) 조용현, 앞의 논문, 1996, 129쪽.

58) 허홍식 편, 『眞樂公重修淸平山文殊院記』,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1984, 588쪽.

59) 허홍식 편, 앞의 책, 1984, 588쪽.

60) 『東文選』 卷64, 記, 淸平山文殊院記. “…院外別洞 構閒燕之所 其庵 堂亭軒 凡十有餘處 堂曰聞性 菴曰見性 曰仙洞 息菴等 各有其名…”

61) 조용현, 앞의 논문, 1996, 130쪽, 견성은 성품을 본다는 뜻으로, 능엄선의 이론적 기반을 표현한 것이며, 문성은 성품을 듣는다는 뜻으로서 능엄선의 실천 방법을 집약한 것이다.

道士 곽여를 비롯한 은원충, 김황원, 이중약 등 道家 인물들과의 광범위한 교유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62)</sup> 곽여 역시 거사불교의 대표적 인물로 스스로를 ‘금강 거사라 지칭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자현과 1038년(문종 37) 3월에 과거에 급제한 인물로 이후 이자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은원충에 대해서도 衛士 또는 處士라는 기록으로 보아 도교적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이자현의 수행 장소로 문수원 터를 추천해주는 등 밀접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sup>63)</sup> 즉, 이자현의 사상은 죽림사상과 같은 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sup>64)</sup> 불교와 도가사상이 융합되어 있는 과도기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65)</sup>

이와 함께 이자현이 혜조국사 曇眞, 대감국사 坦然과 교유했다는 사실은 고려 중기 선종을 부흥시켰던 선승들에게도 사상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 ② 郭興

곽여의 본관은 청주로 자는 夢得, 시호는 夢得이다. 곽여는 1083년(문종 37) 이자현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內侍에 소속되었다가 閤門祇候洪州使를 거쳐 禮部外郎으로 사직하여, 金州에서 은거하였다. 인종의 명을 받아 정지상이 저술한 「東山濟記」에는 그가 곽여를 불교·도교·의학·음양설 등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평하고 있다. 일찍부터 정지상이 곽여의 문하에서 출입하면서 여러 사상과 종교를 섭렵한 인물임을 확인하는 기록이다.<sup>66)</sup>

곽여는 국왕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다. 그는 태자시절 예종의 僚佐였으며, 예종의 즉위 후에는 궁궐에 거처를 따로 마련하여 가까이 둘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다. 이러한 사실은 예종이 그를 아껴 술자리를 벌이고, 시를 지어 곽여에게 화답하여 올리도록 명하기도 했다는 기록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당시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입지에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다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62) 조용현, 앞의 논문, 1996, 146쪽.  
 63) 조용현, 앞의 논문, 1996, 150쪽.  
 64) 최병현, 앞의 논문, 1983, 960쪽.  
 65) 김두진, 앞의 책, 2009, 193쪽.  
 66) 김철웅, 앞의 논문, 2011, 356쪽.

처사 곽여가 쉼 서쪽에 있는 별장에서 입송하는 使臣과 副使를 轉送하기를 청하였 다. 왕이 특별히 酒果를 하사하고 내관을 명하여 맡게 하였는데 설비가 매우 성대하니 여론이 그르게 여겼다.<sup>67)</sup>

국가에서 사신을 파견할 때 곽여에게 이들을 전송했다는 내용 역시 그가 예종의 측근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후 벼슬을 버리고 곽여가 은퇴한 이후에는 예종이 그를 불러 스승으로 삼았는데, 곽여는 궁궐을 드나들 때는 늘 머리에 오건을 쓰고 도교수련자의 복장인 학창의를 걸쳐 입는 등 도가적 생활을 영위했다. 이에 사람들이 그를 金門羽客이라 불렀으며,<sup>68)</sup> 예종 역시 곽여를 ‘眞人’, ‘先生’으로 높여 불렀다.<sup>69)</sup>

그는 개성의 동쪽 若頭山에 東山齋를 열고 머무르며 스스로를 동산처사라 일컫 으며 지냈는데 거처하는 방을 虛靜堂, 서재를 養志齋라 이름하였고, 이에 예종은 친히 편액을 써서 하사했다고 한다.<sup>70)</sup> 예종과 곽여의 관계를 본 이규보는 “예종은 곽여와 같은 詞人, 逸士와 함께 시를 짓고 노래를 지었는데 세간에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니, 실로 태평성대의 성대한 일이다. 지금 예종창 화집이란 것이 이미 세상에 유포된 지 오래인데,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가 비로소 어떤 사람의 집에서 얻어 경건히 읽고 당시 군신간의 경사스런 모임을 목격할 것 처럼 상상하매, 탄식하고 한탄하다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마구 흘렀 다”고 그 감회를 서술했다.<sup>71)</sup> 이로 보아 곽여는 예종과 사상이 같았을 뿐 아니라 예종의 총애를 통해 측근세력으로서 일정한 정치적 역할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도가 적 성격이 강한 그를 예종이 아꼈다는 사실은 이 시기 도교가 중흥할 수 있었던 것과도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sup>72)</sup>

67) 『高麗史節要』 卷8, 睿宗 10年 6月. “處士郭興請於所居闕西別業餼入宋使副. 王特賜酒果, 命內官主辦, 供帳甚隆. 物議非之”

68) 이인로, 『破閑集』 卷中, 박성규 역, 보고사, 2012, 135쪽. “…常以烏巾鶴氅, 出入宮掖間, 時人謂之金門羽客…”

69) 『高麗史』 卷97, 列傳, 諸臣, 郭尙, 郭興. “…睿宗在東宮識之, 卽位, 遣中使徵之, 使居禁中純福殿, 稱爲先生…”

70) 『高麗史』 卷97, 列傳, 諸臣, 郭尙, 郭興. “…旣而固求退居, 賜城東若頭山一峯, 構室以居, 號東山處士名其堂曰虛靜 齋曰養志, 親書額賜之…”

71) 이규보, 『東國李相國集』 卷21 「睿宗唱和集跋尾」. “…伏聞 睿廟聰明天縱 制作如神 席太平之慶 乘化日之長 常與詞人逸士若郭興等賦詩著詠 攬金振玉 動中韶鈞 流播於人間 多爲萬口頌頌 實太平盛事也 今所謂 睿宗唱和集是已 行于世久矣 臣未得奉覽 始於某人家得而拜讀 想目觀當代之君臣慶會 嗟嘆不足 不覺涕之橫流也…”

다음으로는 당시에 광여가 교유하던 인물들을 살펴보겠다. 우선 청평거사 이자현과의 관계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여는 이자현과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벼슬을 버리고 처사가 되자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처사방이라 불렀다는 내용만으로도 두 인물간의 사상적 공통점과 교유를 짐작할 수 있다.<sup>73)</sup> 즉, 광여가 도가적 성향이 짙은 인물이기는 했으나 도교를 비롯하여 불교에도 상당한 관심이 있었음은 이자현과의 교유가 증명한다. 이외에도 『과한집』에서도 그가 교유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 볼 수 있다.

학사 김황원, 좌사 이종약, 처사 광여는 모두 奇士로써 그들은 젊어서 문장으로 서로 벗이 되었는데 이를 두고 사람들이 神交라 하였다. 두공 이좌사의 집에 찾아가 淸談이 그칠 새가 없어 해가 저무는 줄 몰랐다.<sup>74)</sup>

위와 같이 그는 유학자, 선사, 도사 등 여러 사상과 종교계의 인물들과 교유하였다. 특히 도교적 성향이 강했다는 사실은 고려 중기 도교세력의 대표적 인물이라 일컬을 수 있는 이종약과의 관계에서 미루어 볼 수 있다. 실제로 광여 역시 ‘金門羽客’이라 불릴 정도로 도교적 성향이 짙었으며, 그러한 그를 예종이 先生, 眞人이라 높였다는 사실은 예종대에 도교가 성행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이것은 당시 고려사회의 사상계가 유교, 불교, 도교가 서로 아우르고 있는 모습에서 통합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고려 중기사회에서 다양한 사상이 공존하며 각계의 인물들이 교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종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예종의 다양한 사상계를 아우르는 정책은 왕권의 안정화를 목적에 둔 것으로 父王이었던 숙종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 볼 수 있다.

숙종은 즉위 후 개경에 집중된 귀족들의 힘을 분산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지리 도참사상을 근거로 金謂禪의 남경의 건도를 받는다.<sup>75)</sup> 하지만 이 정책은 개경 문벌

세력의 강경한 반대에 의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왕권을 위협할 문벌귀족 세력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를 견제한 숙종은 기존의 관료 또는 이들과의 결합을 통해 성장한 교종세력이 아닌 왕권을 지지할 수 있는 신진세력을 형성하고자 했다. 숙종이 예종의 세자시절부터 광여로 하여금 곁에서 지키게 했다는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뒤이어 왕위에 오른 예종 역시 왕권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상의 인물들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신진세력을 형성하고자 했고 이러한 정치적 행보는 고려 중기 다양한 사상이 공존, 교류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72) 김철웅, 「고려 예종대 광여의 활동과 도교」, 『한국인물사연구』16, 한국인물사연구소, 2011, 340쪽.  
 73) 최자, 『補閑集』 卷上, 박성규역, 보고사, 2012, 66-67쪽. “...大康九年癸亥, 同勝無達官, 李資玄, 郭興, 皆棄官爲處士, 時號處士勝, 有一滑稽僧, 戲學子云, 須占尙書勝, 休登處士科”  
 74) 이인로, 『破閑集』 卷中, 박성규 역, 보고사, 2012, 158-159쪽. “金學士黃元, 李左司仲若, 郭處士與皆奇士, 少以文章相友, 號神交, 二公嘗訪左司第 淸談麈尾, 不覺日暮...”  
 75) 『高麗史』 卷11, 肅宗 4年 9月. “九月 令宰臣日官等, 議建南京于楊州”



### Ⅲ. 거사불교의 주요 인물과 交遊

거사불교의 주도인물들은 유·불·도교계의 주요 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는 신진세력을 등용하고자 했던 예종의 정치적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예종의 후원에 의해 고려 중기 사회는 다양한 사상이 공존·성장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거사불교의 주도인물들과의 교류로 사상적 영향을 주었던 유·불·도교계의 주요 인물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고려 중기 사회의 사상계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보겠다.

#### 1. 유교계 주요 인물과 교류

##### 1) 金富軾

김부식의 자는 立之, 호는 雷川이며 시호는 文烈이다. 그는 武烈王의 후손으로 증조부인 魏英이 太祖에게 귀의해 경주지방의 州長에 임명되었고, 이후 아버지인 觀때부터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김부식은 1096년(숙종 1) 과거에 급제하여 안서대도호부의 司錄과 參軍事를 거쳐 한림원의 直翰林에 발탁되었다. 이후 20여 년 동안 한림원 등의 문한직에 종사하며 金黃元·李樞와 함께 古文體 문장의 보급에도 대단한 노력하는 한편 예종·인종에게 경사를 강론하기도 하였다.<sup>76)</sup>

1135년 묘청의 난이 발생하자 당시 증서시랑평장사로서 判兵部事를 맡고 있던 김부식은 元帥로 임명되어 진압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당시 김부식은 묘청의 난을 진압할 때 자신의 막료로서 전공을 세운 윤언이가 주장한 칭제건원론이 묘청의 난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포상하지 않고 도리어 탄핵해 梁防禦使로 좌천시켰다.<sup>77)</sup>

윤언이와 김부식과의 관계는 정치, 사상적 입장을 달리하였던 두 문벌세력 간의

76) 『高麗史』卷14, 睿宗 16年 3月. “甲寅 御清譴閣, 命翰林學士朴昇中, 講禮月令, 起居注金富軾, 講書說命”; 『高麗史節要』卷10, 睿宗 11年 5月. “御崇文殿, 命平章事金富軾講易尚書, 使翰林學士承旨金富儀知奏事洪彝鉉承宣鄭沆起居注鄭知常司業尹彥頤等問難. 富儀即富軾也”

77) 『高麗史』卷96, 列傳, 諸臣, 尹瓘, 尹彥頤. “...及彥頤爲幕下, 富軾奏, “彥頤與鄭知常, 深相結納, 罪不可赦.” 於是, 貶梁州防禦”

갈등 구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식 역시 불교세력과 많은 교류를 하였고, 개인적으로도 불교사상에 심취해 있어서 거사불교라는 공통된 성향도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가 일찍이 현화사에서 주석했다는 사실과 이후 의천과 담론했다는 기록, 의천의 비문을 포함하여 사적기나 사찰 관련 기문을 상당 수 썼다는 사실 등을 통해 알 수 있다.<sup>78)</sup> 또한 그는 觀瀾寺라는 개인원찰을 소유할 정도로 개인적으로나 가문의 문풍으로 불 때에도 불교에 관련이 깊었으며, 정계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불교에 더욱 심취하여 스스로를 운당거사라 칭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부식은 그의 원찰인 관란사에서 은거하며 이곳에서의 생활을 주제로 詩를 짓기도 하였다.

六月人間暑氣融 6월 세상엔 더위가 한창인데  
江樓終日足清風 강변 누각엔 온종일 서늘한 바람 가득하네.  
山容水色無今古 산 모양, 물빛은 예나 지금이나 일반인데  
俗態人情有異同 세속의 인정은 차이가 있네.  
舴艋獨行明鏡裏 쪽배는 홀로 맑은 거울 속으로 들어가고  
鸞鷲雙去畫圖中 해오라기 한 쌍은 그림 속에 날아가네.  
堪嗟世事如銜勒 아! 세상일은 재갈과 굴레처럼  
不放衰遲一禿翁 머리 다 빠진 이 늙은이를 놓아주지 않네.<sup>79)</sup>

김부식은 유학자인 동시에 불교에 관한 관심이 컸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교류하였던 인물들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의천의 제자인 혜소나, 청평거사 이자현과도 깊게 교류하였던 사실도 확인된다. 김부식은 유학자인 동시에 불교에 대한 관심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천태종을 창종하였던 대각국사 의천을 존경하였다. 그는 문종의 발원에 의해 대각국사가 불법을 밝혔던 흥왕사의 쇠퇴를 아쉬워하며 연화법회를 열어 부흥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의천의 사후 윤관이 지은 대각국사의 비문을 김부식이 개찬했다는 사실은, 의천과 김부식 간의 친분, 즉 의천에 대한 김부식의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sup>80)</sup> 아래와 같이 김

78) 박용진, 『대각국사 문집』, 지식출판드는지식, 2010, 215-216쪽.

79) 『東文選』卷12, 觀瀾寺樓.

80) 김홍삼, 앞의 논문, 2004, 115쪽.

부식이 讚한 「영통사대각국사비문」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게 한다.

신이 이로 말미암아 한 번 볼 수 있었는데, 용모와 신색이 맑고 청명해 마치 청천백 일을 보는 것과 같았다. 좌담할 기회를 받아 낮부터 밤이 다하도록 주역과 노장의 한 두 가지 대의를 설문하셨는데, 신이 우연히 그것에 대해 답할 수 있었다. 다른 날 자주 칭찬하며 ‘답사의 아우 또한 재사로다’라고 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국사께서 입멸 하셨다. 아, 선비가 진정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쓰이게 되면 설령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요, 비록 머리카락을 펴고 갈아 밟게 하더라도 또한 기꺼이 사모할 바이거늘, 하물며 문사로서 비석 아래 이름을 거는 일이야 어찌 영광과 다행이라 말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신은 학식이 고루하여 언사가 막히고 어눌해, 국사의 그윽한 덕행의 감춰진 광채를 빛내어 후세 자손들에게 보이지 못하니 이것이 한스러운 바다.<sup>81)</sup>

사료의 내용은 김부식이 의천을 향해 가지고 있던 경외심이 대단했과 그가 불교 사상에 대한 관심과 고승에 대한 신망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의천의 제자이자 유명한 화엄학 승려였던 혜소와 담론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그들의 교유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살필 수 있다. 혜소가 자신의 스승인 의천의 행록을 주며 비문을 개찬게 한 사실 역시 이들의 관계가 평장히 친밀했음을 시사한다.<sup>82)</sup>

西湖의 見佛寺에 머물렀는데 거처하던 方丈이 교묘하여 거기에 오직 방석 크기의 푸른 바위 하나를 갖다 놓고 때때로 거기에다 글씨 쓰는 것으로써 마음을 달랬다. 시종이 벼슬을 그만 둔 후에는 나귀를 타고 자주 방문하여 밤새도록 불가의 도를 이야기했다.<sup>83)</sup>

『과한집』에 따르면 혜소와 김부식의 교유가 있을 당시 혜소는 대각국사 의천의 문도로서 見佛寺에 주석하고 있었다. 김부식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나귀를 타고

81) 허홍식 편, 「靈通寺大覺國師碑」,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1984, 582쪽. “...臣由是得以一謁容色辟清若靑天白日辱賜之坐語自晝窮夜試問易老莊一二大義臣偶能言之他日數稱之曰湛師弟亦才士也居無何師入滅噫士爲知己者用假令死而可作雖布髮而躡足亦所欣慕焉況以文字掛名於碑石之下豈不爲榮幸也哉而學術固隨辭語澁訥不能發幽德之光以宗來裔是所恨焉其銘曰...”

82) 김홍삼, 앞의 논문, 2004, 116쪽.

83) 이인로, 『補閑集』 卷中, 박성규 역, 보고사, 2012, 145-146쪽. “...住西湖見佛寺方丈閑然, 唯畜靑石一葉如席大, 時時揮灑以遣興, 侍中納政後, 騎驢數相訪. 竟夕談道...”

자주 이곳에 왕래하면서 그와 밤을 새우며 도를 논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시적인 교감의외에 ‘도를 논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화두로 하여 담론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혜소의 「묘아시」에 대한 김부식의 화답시를 살펴보면 그가 불교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불교에 대한 김부식의 관심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부식은 거사불교의 대표인물인 청평거사 이자현과도 친밀한 교유를 맺고 있었다. 이는 김부식이 이자현의 전기를 지어 세상에 펼쳤다는 기록과, 그의 아우인 김부철 역시 「진락공문수원기」를 讚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sup>84)</sup> 또한 김부식이 교유했던 대각국사 의천과 이자현 역시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이들 가문 간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했음을 알 수 있다.

김부식의 아우인 김부철 역시 이자현의 전기를 펼쳤다는 사실과 더불어 구산사의 담수선사와 교유하였다는<sup>85)</sup> 내용뿐만 아니라, 광여와도 교유한 기록이 있어<sup>86)</sup>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고려 유자들이 불교를 중시하면서도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단순히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것으로 문벌귀족사회에 유행하였던 사상적 흐름임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 김부식과 그의 아우 김부철이 교유한 인물들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고려사회와 사상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김부식은 유교를 기본으로 했음에도 불교, 특히 불교의 철학적·사상적 측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었으며 이를 유교 사상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이것은 유교를 이념적 기반으로 삼은 문인들이 국교인 불교사상에 대한 관심과 도교사상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2) 尹彦願

윤언이의 본관은 과평이며, 호는 金剛居士로 시호는 文康이며 저술로는 『易解』가 있다. 그는 문하시중을 지낸 윤관의 아들로 역시 문벌귀족 가문의 일원이었다. 윤

84) 허홍식 편, 「眞樂公文殊院記」,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1984, 590쪽. “...正議大夫國子監大司成寶文閣學士知制誥金富轍記...”

85) 조명제, 앞의 논문, 2002, 125쪽.

86) 최자, 『補閑集』 卷下, 박성규 역, 보고사, 2012, 449-450쪽. “龜山晏秀禪師, 與郭興處士, 金洪兩學士富轍洪躡等, 爲文會之交. 時睿王幸西都, 郭金洪皆扈駕, 唯晏秀不得詣行在. 有詩寄云, ‘靑雲二學士, 白日一仙翁. 筇屐巡遊下, 連裾扈從中. 大同楊柳雨, 長樂牡丹風. 應製多佳句, 聯篇寄驛筒.’”

언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인종 때 起居郎으로 임명되었으나, 묘청의 난을 진압한 이후 김부식에 의해 梁州防禦使로 좌천되었다가 후에 廣州牧使가 되었다. 1148년 (의종 2) 정당문학판형부사가 되었으며 관직에 있는 동안 『주역』에 능해 국왕의 총애를 받았다.<sup>87)</sup>

윤언이의 정치적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김부식과의 관계이다. 예종 때 윤언이의 아버지 윤관이 왕명을 받아 大覺國師 義天의 비문을 지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의천의 문도들은 왕에게 청해 김부식이 지어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김부식 역시 사양하지 않고 다시 지었는데,<sup>88)</sup> 이러한 사건으로 윤언이는 김부식에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다. 또한 예종이 김부식에게 『周易』을 강론하고 물어 논란이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당시 주역에 매우 정통했던 윤언이가 정연한 논리로 반박하여 김부식의 대답을 궁하게 하였던 사실은 윤언이와 김부식과의 관계가 이전부터 좋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문벌귀족 간의 관계와는 별개로 윤언이 역시 당대 문벌귀족들과 마찬가지로 불교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고려 중기 사회의 문벌귀족세력이 불교계와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연유로 불교에 귀의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윤언이 또한 불교에 심취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파평에 거주하면서 스스로를 ‘금강거사’라 자호했다.<sup>89)</sup> 또한 그의 불교사상에도 도가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데, 선종에 심취하였을 뿐 아니라 도가적 생활을 중요시 여긴 것으로 거사불교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강공 윤언이는 만년에 더욱 좌선의 취미를 즐겨, 벼슬을 그만두고 파평군 금강재에 은거하며 스스로를 금강거사라고 불렀다. 매양 성으로 들어갈 때마다 황소에 걸터앉아 가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혜소의 문인인 관승선사와 벗이 되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아 심히 기뻐하였다. 당시 관승은 광명사에서 주지로 있으면서 풀로 지붕을 이은 한 암자를 짓고 한 좌석에 겨우 앉아 약속해 말하기를 ‘만

87) 『高麗史』 卷96, 列傳, 諸臣, 尹瓘, 尹彥頤. “...一日, 王幸國子監, 命富軾講易, 令彥頤問難. 彥頤頗精於易, 辨問縱橫, 富軾難於應答, 汗流被面...”

88) 『高麗史』 卷96, 列傳, 諸臣, 尹瓘, 尹彥頤. “先是, 瓘奉詔撰大覺國師碑, 不工, 其門徒密白王, 令富軾改撰. 時瓘在相府, 富軾不識遂撰, 彥頤心嘸之...”

89) 『高麗史』 卷96, 列傳, 諸臣, 尹瓘, 尹彥頤. “彥頤, 工文章, 嘗作易解, 傳於世, 晚年, 酷好佛法. 請老退居坡平, 自號金剛居士...”

저 가는 자가 이곳에 앉아 있으면 죽기로 합시다’라고 하였다.<sup>90)</sup>

사료에서처럼 윤언이는 선종에 관심이 많았을 뿐 아니라 덕종 때 승통에 올랐던 선승 혜소국사 정현의 문인인 관승을 비롯하여 여러 문도들과도 교류하였다.<sup>91)</sup> 이러한 교류로 인하여 관승의 스승이었던 혜소국사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예종의 불교정책 또는 불교에 관한 관심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 점도 파악된다. 윤언이 역시 예종의 총애를 받는 동시에 예종이 큰 관심을 가졌던 여러 선승들과 교류하였으므로 그 또한 예종의 불교 정책에 동조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종합하여 볼 때, 예종의 정치적 후원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고 각 계층의 인물들이 서로 교류함으로써 고려 중기 거사불교가 등장하는 원인의 하나로 짐작할 수 있겠다.

### 3) 李顯

이오는 고려의 문신으로 호는 금강거사, 시호는 文良이다. 그 역시 이자현과 마찬가지로 경원이씨 출신이다. 이오는 과거에 급제하여 直翰林院이 되었고 여러 차례 승진해 벼슬이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守太保 門下侍郎同中書 門下平章事 判尚書禮部翰林院事 修國史上柱國이 되었다. 또한 문종·순종·선종·헌종·숙종·예종의 여섯 왕을 섬기는 등 순탄한 관직생활을 했다.<sup>9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벌귀족들과는 달리 욕심이 적어 녹봉 외에는 집안 살림을 불리지 않았고, 녹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산업을 경영하지는 않았다. 그 역시 불교에 심취하여 불경과 장소를 읽고 특히, 『金剛經』을 좋아하여 금강거사라 자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93)</sup>

90) 최자, 『補閑集』 卷上, 박성규역, 보교사, 2012, 115-116쪽. “尹文康公彥頤, 晚節尤嗜禪味, 退居鈴平郡金剛齋, 自號金剛居士. 每入郭跨黃牛, 人皆識之. 與慧炤門人貫乘禪師爲友, 相得甚權, 時貫乘住廣明寺, “置一蒲庵, 止容一座, 約曰先逝者, 坐此而化...”

91) 김홍삼, 앞의 논문, 2004, 117쪽.

92) 『高麗史』 卷95, 列傳, 李子淵 李顯. “顯, 登第直翰林院. 事文順·宣·獻·肅·睿六朝, 累官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守太保·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判尚書禮部·翰林院事·修國史·上柱國. 年六十九卒, 輟朝三日, 諡文良.”

93) 『高麗史節要』 卷7, 世家, 睿宗 5年 7月. “門下侍郎平章事李顯卒. 顯恬靜寡欲, 不事生產. 酷嗜浮屠說, 自號金剛居士”

## 2. 불교계의 주요 인물과 교류

### 1) 大覺國師 義天

대각국사 의천의 휘는 煦, 자는 의천으로 문종의 네 번째 아들로 어머니는 인에 태후이다. 의천은 문종의 권유로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으며 이후 경덕국사에게서 득도하게 되었다.<sup>94)</sup>

義天이 출가할 당시 불교계는 화엄종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향 아래에서 그 역시 불교에 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入宋하기 이전부터 淨源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왕자의 신분이지만 출가한 구도자로서 불교계의 흐름에 깊은 관심을 지녔던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는 입승 이후 宋으로부터 천태종을 받아들였지만, 교학을 중심으로 하는 선사상의 수용에도 적극적이었다. 즉 천태와 화엄의 통합으로 兩宗派의 교리체계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실제적으로 천태학은 원효 이래 체관과 지종에 의해 고려초기부터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승되지 못했다.

의천은 고려로 귀국한 이후 국왕과 모후의 지원 아래서 국청사를 창건하였다. 그리고 1095년(숙종 1) 국청사 낙성과 함께 주지에 취임하였다.<sup>95)</sup> 의천은 교선의 대립으로 갈등이 심화되었던 고려 중기 종교계를 천태종으로써 극복하고자 했다.

‘선가에서는 방편을 빌리지 않고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는 상상근기의 지혜를 소유한 자나 가능한 일이다. 간혹 하근기의 사람이 구이지학으로 하나의 도리를 터득하고서 스스로 족하다고 여기는가 하면, 삼장의 십이분교를 가리켜 추구요 조박이라고 하면서 또 불 것이 뭐가 있느냐며 비웃고 있으니, 이 또한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능가경과 기신론 등의 경론을 배우기를 권하기도 하였다.<sup>96)</sup>

이와 같은 의천의 천태종 사상과 불교통합을 위한 노력은 고려 중기 사회의 정

94) 『高麗史』 卷8, 世家, 文宗 19年 5月 癸酉. “五月 癸酉 御景靈殿, 召王師欄圓, 祝子煦髮爲僧”

95) 박용진, 「의천의 송 천태교학 교류와 천태교관」, 『한국학논총』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606쪽.

96) 박용진, 『대각국사 문집』, 지식음만드는지식, 2010, 140-152쪽.

지적 흐름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당시 강력하던 문벌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실과 왕권을 옹호하기 위한 성격이 짙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의천의 통합 노력은 왕실 위주의 귀족불교적인 성격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녔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여러 종파의 융합을 통해 왕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자 했던 데 목적을 두었다.

의천이 고려불교계에 끼친 영향은 상당했다. 그가 구법활동을 위해 入宋한 이후부터 양국 간에는 弘法交流가 활성화되어 동북아시아 불교문화 교류와 진흥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중국의 宋·遼 등지에서 수집한 불교전적 등은 고려교장 편찬과 고려초조대장경 편찬에 영향을 끼쳤다.

대내외적으로도 불교사상계에서 일정한 위상을 가지고 있던 그가 고려 사상가들에게 준 영향은 상당하였다. 의천과 교류한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청평거사 이자현과는 혈연적으로, 사상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었다. 의천과 이자현은 태생적으로 고종 4촌이라는 혈연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왕래하며 ‘선교융합’의 사상에 관한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있다.<sup>97)</sup> 또한 이자현이 선 수행 방법으로 『능엄경』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의천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능엄경』이 고려사회에 수용된 것은 이른 시기였지만, 경전의 가치가 부각된 시기는 의천에 이르러서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천이 송에서 구법활동을 하던 당시에 화엄종의 대가인 정원과의 담론을 통해 능엄경을 수학하였으며, 귀국 후 이자현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천과 이자현 간의 관계는 다음 대까지 이어지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의천의 제자인 혜소가 이자현이 죽은 뒤 祭文을 저술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sup>98)</sup>

### 2) 惠素國師

혜소국사는 고려 인종 때의 승려이다. 대각국사 의천의 제자로서, 대각국사의 「行錄」 10권을 찬했다. 그는 모든 경전에 통달하고 더욱 시와 글씨에 능했다. 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 內道場으로 불러 『화엄경』을 강의하게 하고, 많은 백금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 고려 불교계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위상과 영향을 알

97) 박용진, 『대각국사 문집』, 지식음만드는지식, 2010, 60-61쪽.

98) 허홍식 편, 『祭淸平山居士眞樂公之文』,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亞細亞文化史, 1984, 590-591쪽.

수 있다. 당시의 여러 기록을 통해 그가 교유하던 인물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는 李子淵이 창건한 甘露寺에 시를 지었고, 李資玄의 제문 및 「금란총석정기」를 지었다는 사실과 다음의 사료에서 보는 것처럼 문벌귀족가문의 일원이었던 김부식과도 역시 두터운 교분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서사)고을 동쪽 광정 나무 위에 있는데, 견불사라 부르기도 한다. 승려 혜소가 여 기에서 주석하고 있었는데 김부식이 매양 나귀를 타고 방문하였다.』<sup>99)</sup>

이렇듯 김부식이 의천의 제자였던 혜소와 날이 저물도록 도에 관하여 담론했다는 기록은 둘의 관계 역시 밀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김부식이 평소에 대각 국사를 흠모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김부식의 방문은 다소 의도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혜소가 스승인 의천의 「행록」을 김부식에게 주며 비문을 개찬토록 했다는 사실은 운연이와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 교분이 두터웠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慧德王師 韶顯

혜덕왕사 소현은 고려 중기의 승려로 법상종의 고승이다. 속명은 民, 자는 範圍로 대표적인 문벌가문인 인주이씨 李子淵의 아들이다. 그는 1048년(문종 2)에 출가하여 智光國師 海麟의 제자가 되었고, 復興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1061년(문종 15)에 승과에 합격하여 大德의 법계를 받았으며 후에 왕실 내전에서 法席을 주관하거나 사찰에서 법회를 열었다. 이후 1079년(문종 33)에는 金山寺의 주지가 되어 절을 중창하였다.<sup>100)</sup>

그는 금산사의 남쪽에 廣敎院을 설치하여 경전을 강독하고, 경전의 판각과 유포를 위한 刊經藏으로도 이용했다. 1083년(선종 원년)에 승과를 주관하고 僧統이 됨에 따라 玄化寺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금산사로 돌아가서 후학들을 지도했으며,

9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3, 白川郡 佛宇 江西寺. “在郡東匡正渡上一名見佛 僧惠素佳于此金富軼每騎 驢訪之”

100) 허홍식 편, 「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1984, 543-544쪽. “...大康五年 秋...也是年 詔住全州金山寺九年又...初失其本積有年矣既得之尊尙者衆矣師曾於金山寺選勝于寺之南 走六十步許地創設一院額號廣敎仍筆刻雕經板置于院院之中別造金堂一所并繪畫盧舍那及獎基二師 像...”

1095년(숙종 즉위년)에 현화사에서 입적하였다. 제자로는 도생승통 등 1,000여 인이 있으며 금산사의 동쪽에 비가 남아 있다.<sup>101)</sup>

그는 性宗<sup>102)</sup>과 相宗<sup>103)</sup>을 겸비하고자 노력했으며 법상종의 계보를 정리하고자 했다.<sup>104)</sup> 또한 그가 교유하던 인물들을 보면 당시 사상계의 흐름과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 주목할 만 하다. 그 중 의천과 소현이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여러 사실은 왕실을 대표하는 화엄종과 대표적 문벌귀족가문이 후원하는 법상종의 대립적인 면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인식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주목된다. 둘 사이의 교유는 서로 주고받은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특히 의천이 소현의 죽음을 애도한 시에서는<sup>105)</sup> 소현의 공덕을 기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외의 기록으로는 소현이 광교원과 금당을 짓고 경전 간행과 불상 제작 때 의천을 포함한 왕실과 귀족들이 단월에 포함되어 있었으며,<sup>106)</sup> 의천이 속장경을 간경했을 때도 역시 법상종 승려들이 협력했다는 점<sup>107)</sup> 등은 이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그가 청평거사 이자현과 같은 인주이씨이며 친족이라는 사실 또한 그들이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의천 역시 이자현과 교유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즉 고려사회가 전반적으로 인주이씨가 후원하던 법상종 세력과 왕실의 화엄종 세력으로 나뉘어졌으며 대립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종파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정치세력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이것은 각 승려들 간의 교유가 종파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서로 사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101) 허홍식 편, 「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1984, 547쪽. “...弟上首導師生僧統而下凡一千餘人等狀先師行涕淚伏...”

102) 일체의 宇宙萬有는 동일한 法性에서 생겼다고 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타당성을 갖는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며, 그리하여 일체의 중생은 모두 성불할 성품이 있다고 하는 宗旨(김승동, 앞의 책, 2011, 608쪽). 고려시대의 경우 왕실 및 경원이씨 세력과 대립된 귀족의 후원을 받았다.

103) 色界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주만유의 본체보다는 現像界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생의 성불 여부를 말하는 宗旨(김승동, 위의 책, 2011, 560쪽). 고려시대에 주로 경원이씨의 후원을 받았다.

104) 이병욱, 「의천·소현·이자현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국종교사학연구』10, 한국종교사학회, 2002.

105) 토니오 푸지오니, 「고려시대 법상종 교단의 추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83쪽.

106) 토니오 푸지오니, 앞의 논문, 1996, 82-83쪽.

107) 토니오 푸지오니, 앞의 논문, 1996, 80쪽.

4) 慧照國師 曇眞

고려 중기 대표적 선승인 혜조국사 담진은 예종 때의 승려로 국사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성이 申氏, 자는 子正이며, 담진은 범명이며 慧照국사와 같은 인물로 추론되기도 한다.<sup>108)</sup> 그는 어려서 출가해 爛圓의 제자가 되었다. 의천이 『續藏經』을 판각할 때 교정을 맡아보았으며 난원이 입적한 후에는 義天의 범맥을 이었다. 그는 1107년(예종 2) 예종의 王師가 되었고,<sup>109)</sup> 1114년 국사가 되었다. 또한 개경의 원명사, 춘천의 화악사, 전남 승주의 정혜사 등에 머물렀는데, 특히 말년에 정혜사에 주석하게 되면서부터는 수선사 승려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sup>110)</sup> 그는 뛰어난 선승이었음과 동시에 華嚴學 대가로 알려져 있다.

혜조는 굴산문에 속한 승려로 제자인 지인, 영보, 영보의 범사인 조응과 조응의 범사인 자엄 등이 모두 굴산문 승려로 파악되고 있다.<sup>111)</sup> 또한 이후 담진의 제자인 탄연의 탐비(1172년, 명종 2)에는 조계종에 소속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혜조의 문도가 조계종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예종대에 미약하게 세력을 유지하던 선종 세력이 무신란 이후 고려사회에 재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렇듯 굴산문 선승들의 범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sup>112)</sup>

혜조의 사상 형성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것은 宋에서의 유학 생활이라 볼 수 있다. 그는 1076년(문종 9)에 入宋하여 불법을 구했는데,<sup>113)</sup> 당시 宋의 神宗과 新法黨 관료들의 후원을 통해 北宋 수도인 변경에 지내면서 송 불교계의 승려들과 교류하였다. 당시 송에서는 신종이 왕안석을 등용하여 신법이라는 개혁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고려와 연합해 요를 공략하려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親高麗 정책을 표방하고 있었기에 혜조는 송의 승려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sup>114)</sup> 즉 혜조의 불

108) 최병현, 앞의 책, 1983, 952쪽.  
 109) 『高麗史』卷96, 列傳, 金仁存條. “王封僧曇眞爲王師 以仁存爲封崇使 辭曰 ‘臣職在諫院 已言封王師不可 未蒙俞允 又從而爲使 是欺陛下也.’ 王強之再三 固辭不奉旨 以內侍柳台樹 代之.” 왕이 승려 曇眞을 王師로 책봉하기 위하여 김인존을 封崇使로 삼으니 사양하여 말하기를, ‘신의 직분은 諫院에 있어 이미 왕사를 책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뢰었는데, 아직 왕의 승낙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봉송사가 되어 따르게 되면 이는 전하를 속이는 것입니다라 하였다. 왕이 강력히 두세 번 권하였으나 굳게 사양하고 왕의 명령을 받들지 않으니, 內侍 柳台樹로 대신하게 하였다. 이 기사 내용으로 볼 때 담진의 왕사 및 국사 책봉은 예종의 불교사상에 잘 맞는 고승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10) 김홍삼, 앞의 논문, 2004, 113쪽.  
 111) 김영수, 앞의 논문, 1938, 162쪽.  
 112) 김두진, 앞의 책, 2009, 97쪽.  
 113) 박용진, 앞의 책, 2010, 34쪽.  
 114) 정수아, 『혜조국사 담진과 ‘정인수’-북송선종의 수용과 고려 중기 선종의 부흥을 중심으로』, 『이

교사상은 법원의 범맥을 계승한 임제종의 승려 정인 및 북송계의 불교 인사들과의 교류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송에 가서 『遼本大藏經』을 구해왔다는 사실,<sup>115)</sup> 예종 13년에 안화사가 중수된 뒤 송에서 들여온 좌선의 수행 규칙이 선종계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활성화했다는 사실, 그의 범맥을 이은 선승들이 국사와 왕사에 오르는 등 불교계의 주류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 수선사와도 연결되었다는 사실 역시 혜조가 유학으로부터 얻었던 영향이 고려사회와 선종계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16)</sup> 때문에 그의 교유는 당대의 여러 인물들과 적지 않은 영향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을 보겠다.

“더욱 禪說을 좋아하여 학자가 이르면 더불어 깊은 방에 들어가 종일 단정히 앉아 말을 잇고, 때때로 고덕의 종지를 들어 자세히 의논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心法이 행동에 널리 퍼지니 혜조, 대감 두 국사가 모두 그 문하에서 나왔다.”<sup>117)</sup>

혜조국사 담진 역시 이자현, 탄연 등과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사상적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대각국사문집』에는 그가 혜조국사의 진영을 예찬하는 글이 있어 두 국사 사이에도 사상적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118)</sup> 혜조는 고려사회에서 침체되었던 선종을 증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러한 영향이 이후 지눌에게 이어져 선종의 계통인 조계종을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 또, 그는 범일이 개창한 사굴산문의 범맥을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송에서의 유학생활을 통해 새로운 선종을 고려로 전하였으며, 고려 중기의 선수행법인 간화선이 정착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범맥과 사상은 이자현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혜조국사가 청평산문수원중수비 전문을 지었다는 사실 역시 두 인물 간의 사상적 교류가 상당하였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혜조가 활동하던 시기 고려의 국왕이었던 예종과 그가 지원하였던 정치세력이 사회를 주도하였던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 중기 사회는 사회, 문화적으

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집』, 일조각.  
 115) 『三國遺事』卷3, 前後小將舍利.  
 116) 조명계, 앞의 논문, 2002, 134쪽.  
 117) 이인로, 『破閑集』卷中, 박성규역, 보고서, 2012, 127-129쪽. “...尤嗜禪說, 學者至則輒與之入幽室, 竟日危坐忘言, 時時舉古德宗旨商論. 由是心法流布於海東, 惠照大鑑兩國師, 皆遊其門...”  
 118) 박용진, 앞의 책, 2010, 132쪽.

로 절정기를 맞이하는 한편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문벌귀족과 불교계의 모순이 등장하던 고려 중기는 선종세력이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혜조를 비롯한 글산문의 선승들로 하여금 법맥이 이어졌으며, 이는 이후 무신란을 전후로 조계종이 본격적으로 재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고려 후기 선종 계열이 다시 증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종이 이자겸 일파와 같은 문벌귀족을 견제하기 위해 한안인·윤언이 등의 신진세력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법맥을 전승하고자 하였던 선승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귀족세력들 간의 정치적 투쟁을 해소하고자 하였던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sup>119)</sup> 이후 이들 선종세력은 고려후기에 이르면서 수선사계 선승들과도 법맥과 사상을 같이할 뿐만 아니라 조계종이 부흥하고 고려 사회에서 주요 종파로 성장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20)</sup>

#### 5) 大鑑國師 坦然

대감국사 탄연의 호는 默庵, 시호는 大鑑으로 國師로 추증되었다. 1172년(명종2)에 단속사에 건립한 비가 남아 있다. 그는 13세에 6經의 대의에 통하고 1085년(선종 2) 명경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안적사로 출가하였으며 광명사의 慧炤國師 鼎賢의 문하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心要를 전해 받았다. 1129년 普濟寺 주지로서 법회를 열었다. 1132년 대선사가 된 뒤부터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의 자문에 응하였으며, 1146년 왕사가 되었다. 1148년 단속사로 돌아가 은퇴하였다.<sup>121)</sup> 『보한집』에는 그의 필적이 정체롭고 절묘하다 평하고 있으며,<sup>122)</sup> 춘천 淸平寺文殊院의 증수비와 예천군의 복룡사비, 삼각산 승가사증수비 등을 썼다.

탄연은 혜조국사 담진의 제자로서 그의 문하에 들어가서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119) 김두진, 앞의 책, 2009, 195-196쪽.

120) 김상영, 앞의 논문, 1988, 83-86쪽.

121) 허홍식, 「丹城斷俗寺 大鑑國師碑」 『韓國金石全文』 中世下, 1984, 820-823쪽. “...十四年乙卯任普濟寺帝釋院兼住瑩原寺九月師詣瑩原寺...師之德行道譽爲世所仰每國大事上必以御筆諮問于師由是名顯嘗寫所作四威儀頌餅上堂語句附商舶寄大宋四明阿育王山廣利寺禪師介諶印可...二十四年乙丑上尊師道德四月七日右副 承宣李舖予傳宣以致師事之意席不暇暖...遣知奏事金永寬繼傳上意師復半讓至于再三然上亦勤請不已是時慧星出已經二十餘日而又大旱朝野憂懼五月六日始降請封王師書是...王師卽於是日天乃大雨上謂封崇善德所致益加信...二年丁卯師乞歸老 于晋州斷俗寺...留京而師意益堅上不得已暫許歸休師既得請三月五日出寓天和寺上又欲瞻禮乃迎入于廣明寺師浩然之志不能自已至七月十三日潛發便抵...上知不可以勸留乃遣中貴人金存中右街僧錄翰周陪行九月三日入寺...”

122) 최자, 『補閑集』 卷下, 박성규 역, 보고서, 2012, 447쪽. “大鑑國師坦然, 筆蹟精妙, 詩格高淡...”

청평거사 이자현와도 밀접한 관계였다. 이자현이 탄연의 스승이었던 혜조국사가 입적한 후, 그를 기리며 찬했다는 기록<sup>123)</sup> 탄연이 淸平寺文殊院의 증수비를 썼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자현과 혜조국사 그리고 그의 문인이었던 탄연까지도 교유가 이어지고 있음이다. 또한 그가 이자현의 문하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주목되는데,<sup>124)</sup> 이는 이자현과 탄연의 관계가 사제지간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과는 달리 이자현이 『설봉어록』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수원과 가까운 곳인 화악사에 거주하던 혜조를 찾아가 선에 대한 이치를 묻고 인가를 받았다는 기록<sup>125)</sup>은 이자현과 탄연이 사제지간이었는데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同門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기록마다 차이가 있지만 혜조국사 담진, 대감국사 탄연, 이자현의 실질적인 관계는 상당히 밀접했으며 사상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탄연은 북송 선종계와도 교류가 있었다. 즉, 고려 중기 불교계는 북송 선종계의 영향을 받아 선사상이 각종 『능엄경』 등의 각종 선어록과 함께 부흥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사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즉 거사불교가 당시 고려 중기 사상사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126)</sup>

#### 6) 大禪師 之印

광지대선사 지인은 예종의 아들이며 불교에 귀의한 선승이다. 자는 覺老, 자호 自號는 靈源叟이며, 9세 때 慧炤國師에게 출가하여 15세에 僧科를 통과하고 18세에 法住寺 주지가 되었다. 이후 삼중대사, 선사, 대선사에 봉해졌으며 智勒寺, 金剛寺 등지에 머물렀다. 禪學 외에 教觀을 겸하였고 詩文에도 능했다고 전한다.<sup>127)</sup>

임오년 여름 6월 26일에 집에서 태어났다. 나면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낚새나는 채

123) 이지무 편, 「斷俗寺大鑑國師碑」, 『朝鮮金石總覽』 上, 1976, 563쪽.

124) 이인로, 『破閑集』 卷中, 박성규 역, 보고서, 2012, 127-129쪽. “...尤嗜禪說, 學者至則輒與之入幽室, 竟日危坐忘言, 時時舉古德宗旨商論. 由是心法流布於海東, 惠照大鑑兩國師, 皆遊其門...”

125) 『東門選』 卷64, 淸平寺文殊院記. “...自稱嘗讀雪峯 語錄云 盡乾坤是箇眼 汝向甚處躡坐 於此言下豁然自悟 從此以後 於佛祖言教 更無疑滯 既而 遍遊海東名山 尋訪古聖賢遺迹 後遇慧照國師 住持山隣 華岳寺 往來諮問禪理...”

126) 조명제, 앞의 논문, 2002, 160쪽.

127) 허홍식 편, 「廣智大禪師之印墓誌銘」,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1984, 764쪽. “...識宏遠禪學外兼該教觀 又善屬文尤於古體詩得妙...”

소와 고기를 싫어하였다. 생김새와 음성이 예종과 똑같았으므로 예종이 가장 귀여워하였다. 9세 때 왕명으로 혜조국사에게 위탁하여 머리를 깎고 선법을 배웠는데, 도를 닦는 기질이 어린 나이에 이미 갖추어져 마치 타고난 성품과 같았다.<sup>128)</sup>

예종의 아들로서 그의 총애를 받던 지인이 왕명으로 선승에게 귀의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예종의 사상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교종세력이 장악한 고려사회에서 국왕의 아들이 선승이 되었다는 점은 선종세력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선종에 대한 예종의 관심이 지대했음을 의미한다. 예종대의 선종은 점차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선승들과 교류하던 거사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비록 스승인 혜조국사 또는 탄언처럼 여러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예종의 아들이면서 선승으로 성장하였던 배경으로 고려의 사상계에서의 비중 또한 작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 3. 도교계의 주요 인물과 교류

#### 1) 殷元忠

고려 중기의 술사로 알려진 은원종의 호는 無等山處士·元中이다. 그는 지방에서 처사로 살다가 중앙에 나아가 출사한 다음에도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며 뚜렷한 행적을 남기지는 못했다.<sup>12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던 그를 개경으로 불러 올렸다는 기록<sup>130)</sup>은 그가 고려 중기 사상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1105년(예종 즉위년)에는 智祿延 등과 함께 東界 산천을 순시하는 등 풍수지리설에 일가를 이루었고, 예종 때에 『道說密記』에 근거하여 南京 천도를 주장하기도 하였다.<sup>131)</sup> 이렇듯 지방에 은거하던 그가 예종의 부름을 받아 개경으로

올라 온 뒤에는 예종과 밀착해서 왕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종의 측근이면서 도교세력이었던 이종약을 친거하여 당시 사회에서 도교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고려 중기 사회에서 도교를 비롯하여 풍수지리설과 같은 사상이서 성행하게 된 배경에는 귀족문화가 무르익음에 따라 생긴 서민문화와 괴리된 귀족문화의 공허함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도가사상의 유행을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sup>132)</sup>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예종의 총애를 받던 은원종의 영향 역시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고려왕실에서 풍수지리설을 정설로 내세우는 것은 왕실과 국왕의 위엄을 세우기 위한 목표였을 것이다.<sup>133)</sup> 또한 은원종이 도교세력을 적극 신장시켰던 예종과 밀착된 사실은 왕권을 옹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상과 정치적 이념이 상통했음을 알 수 있다. 은원종은 이종약처럼 직접적으로 예종의 정치개혁에 나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고려사회에 도교라는 새로운 사상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것에 기여를 하였다. 또한 불교계와의 교분으로도 사상적 교류 속에서 거사불교가 대두하고 선종의 재부흥까지 이어졌다 볼 수 있다. 이는 고려 중기 불교계에서 중요한 사안의 하나였으며, 정치적인 시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국왕이었던 예종의 정치개혁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은원종이 청평거사 이자현과 山川勝地를 탐방하여 道風을 즐기는 등 둘의 사이가 은거하기 전부터 긴밀한 관계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은원종이 이자현에게 청평산 문수원을 은거의 장소로 권유했다는 『파한집』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34)</sup> 그러나 이자현이 문수원에서 은거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두 사람 간 교류의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점은 거사불교의 특성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 또한 같은 도교 인물로 가야산에 은거하던 李仲若을 쌍봉사 선승 이종과 협의하여 월출산으로 인도하기도 하였다는 기록<sup>135)</sup>은 선종계열에 한정되었

에게 적극 건의한 이는 이소천이라는 도교계의 인물이었다(전영준, 「고려 예종대의 사찰 창건과 승도 동원-<혜음사신창기>를 중심으로」, 『진단학보』97, 진단학회, 2004).

128) 최병현, 앞의 논문, 1983, 28쪽.

129) 변동명, 앞의 논문, 2013, 19쪽.

130) 이인로, 『破閑集』 卷中, 박성규역, 보고서, 2012, 127-128쪽. “俱樂公資玄, 起自相門, 雖寓跡暫輒, 常有紫霞逸想. 少遊金闈, 從術士殷元忠, 密訪溪山勝地可以卜隱. 殷公云, “楊子江上有青山一曲, 眞避世之境.” 聞之常掛於心…”

131) 『東文選』 卷65, 「逸齋記」, “…先生父某, 以存家祀爲念. 恐不可奪其志. 知處士股元忠. 與禪師翼宗解秘術. 遂貽書以誠告之. 二人者謀曰. 江南諸山. 其形勢若奔螭伏虎. 控扶蘇而朝大內者. 莫奇於道康郡之月生山. 居此者當旬日被微突. 遂斬茅築室於其上. 乃邀致之曰. 此山有道氣. 必異人然後應之.



지만 불교계 인물들과도 상당한 교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36)</sup>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불교계의 세력과 도교계의 세력은 개인적 또는 사상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에 위치했으며,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2) 李仲若

이중약 역시 은원층 및 도교적인 성향이 강했던 거사 관여와 더불어 고려 중기 사회의 도교진흥에 많은 부분을 담당했다. 이중약은 어려서부터 도교에 대한 열망이 컸으며 가야산에 들어가 은거하며 스스로를 ‘청하자’라 칭했다. 또한 그는 의술에 뛰어나 숙종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입궐하였다가 이후 예종의 즉위와 함께 관직을 받고 측근세력으로 활동했다. 이후 그는 입송하여 도교의 진수를 전수받았는데, 귀국 후 교단도교를 성립시켰을 뿐 아니라 예종에게 ‘복원당’ 건립을 주창하였다.<sup>137)</sup>

복원궁의 건립을 통해서 본격적인 도관의 등장과 동시에 도교를 포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원궁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이야기는 당시 고려사회에서 도교가 성행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sup>138)</sup> 또한 이를 통해 그가 예종의 도교정책에 여되어 있으며 예종의 신임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東文選』에서는 그를 “물러나서는 도를 지키고, 나아가면 도를 실현할 수 있는 출중한 인격자”로 묘사했다.<sup>139)</sup> 이로써 토대로 이중약이 고려 중기 사회에 있어서 도교가 고려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역할을 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종의 어수선한 고려사회의 국가적 위기와 민생안정을 목표로 둔 도교진흥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40)</sup> 즉 고려시기 도교가 만연하게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사회가 처한 현실적 모순과 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도교사상과 결합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교세력이 불교세력과 결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君可 以爲修眞之所乎. 先生未知其計. 欣然從之. 既至. 以所居爲逸齋……

136) 변동명, 앞의 논문, 2013, 10쪽.

137) 『高麗史』卷4, 睿宗17年 4月 史臣評; 『東文選』 65, ‘逸齋記’; 『西河集』 卷5, ‘逸齋記’.

138) 김철웅, 앞의 책, 2011, 340쪽.

139) 『東文選』 卷65, ‘逸齋記’. “…時乎退 不夷而齊之 時乎進 不阜而嬰之 一浮沉一往來 無適而不自得者 乃眞隱顯 而隱與道俱藏 顯與 道俱行也 世之有道之士 體是道者 惟海東李左 司一人而已…”

140) 김병인, 「고려 예종대 도교 진흥의 배경과 추진세력」, 『역사학연구』20, 전남사학회, 2003, 20쪽.

## 3) 李少千

이소천은 예종의 측근으로서 김부식이 저술한 「惠陰寺新創記」에서 이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sup>141)</sup> 여기에는 1119년(예종 14) 이소천이 예종으로 하여금 혜음원을 만들도록 간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하급 관료인 이소천을 예종이 가까이 두고 살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고려사회에서 중창된 주요사찰들의 경우 왕실의 발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sup>142)</sup> 하급 관료였던 이소천이 혜음사를 창건하고자 예종에게 요청한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소천은 개경 남쪽의 혜음령에 묘향산의 승려들과 함께 혜음사라는 사원을 세움으로써 그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혜음령은 사람과 물산의 왕래가 빈번해 언제나 봄볕이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호랑이와 도적들이 행인들을 해치기 일쑤였다. 이에 이소천과 묘향산의 惠觀스님 문도인 應濟를 책임자, 敏淸을 부책임자로 하여 16명의 승려를 동원함으로써 예종 16년 2월에 착공, 17년 2월에 완공된 것이 혜음사이다. 또한 왕과 왕비가 여행자들에게 무료급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식량을 지급하고 파손된 기구를 보충하여 줬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곳이 왕실의 각별한 관심 하에 사찰과 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sup>143)</sup>

당시 이소천은 예종의 측근신하로 표현되었다. 이후 퇴임시 7품관리라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아 이소천이 예종의 명으로 공무를 띠고 묘향산에 갔을 시기에는 7급보다 더 낮은 관료였음을 알 수 있다.<sup>144)</sup> 즉, 이소천은 하급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예종의 측근으로서 공무를 행했으며, 이는 특사로서의 역할을 지녔다. 이는 예종의 부친인 숙종이 예종의 측근을 형성하기 위해 양성한 ‘신진정치세력’ 내지는 ‘동관료계’의 일원이라 볼 수 있다.<sup>145)</sup> 혜음사 창건을 마친 이후에 그에 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지만 위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그가 혜음사에 거주하며 수도생활을

141) 『東文選』 卷64, 記, 「惠陰寺新創記」. “…先王睿王在宥十五年 己亥秋八月 近臣少千奉使南地迴 上問若此行 也 有所聞民之疾苦乎 則以是聞之 上惻然哀之 曰 如之何可以除害而安人 奏曰 殿下幸聽 臣 臣 有一計 不費國財 不勞民力 但募浮圖人 新其廢 寺 以集清衆 又爲之屋廬於其側 以著聞民 則禽 獸盜賊之害自遠 行路之難平矣 上曰可 汝其圖 之 於是 以公事…”

142) 김창현, 『고려개경의 구조와 이념』, 신서원, 2002, 17-45쪽.

143) 『新東國輿地勝覽』 卷11, 坡州牧 古蹟條.

144) 전영준, 앞의 논문, 2004, 39쪽.

145) 김상영, 앞의 논문, 1988, 59-61쪽.

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그가 거사라고 칭하고 신앙생활을 이어나 갔다는 사실은 그가 묘향산의 사찰 주지 해관과 관계가 되었으며 예종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배경으로 이소천이 혜음원을 창건할 당시 운집된 대중들이 주지 해관을 포함한 백 여 명을 동원할 수 있었다.<sup>146)</sup>

이소천은 하급 관료이면서도 예종의 측근세력으로 활동하였다. 이는 예종의 정치적 의도와 사상적 측면에서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梅溪先生文集』에는 예종의 사후 이소천이 예종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금탑 조성 및 토지를 시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역시 이소천과 예종이 상당히 긴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sup>147)</sup>

이렇듯 고려 중기 사회에서 하급 관료였던 이소천은 예종의 정치적 목적과 사상적 교류를 함께 하는 측근세력이었으며, 이소천이 스스로를 거사라 칭했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출가를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불교계에 새롭게 등장한 거사불교와 맥을 같이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혜음사신창기」에서 예종에게 간언한 이소천의 행동은 『예기』에 있는 빈민들에게 죽을 쑤어준 행위와 빗대어 언급하고 있다. 즉 이러한 이소천과 묘향산 승려들의 행위를 단순히 도교, 불교에 한한 것으로 이들을 아우르는 공통되는 보편적인 행위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고려 중기 사회에서 다양한 사상이 통합적으로 이해되고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혜음사신창기」는 당대의 최고 문인이었던 김부식이 찬술한 기록이다. 따라서 이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예종의 관계, 김부식의 사찰기문을 썼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교·불교·도교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예종이 벗어나고자 하였던 정치적 위기, 즉 서경세력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남경을 중심으로 개경세력을 보다 더 중용하려고 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46) 전영준, 앞의 논문, 2004, 44쪽.

147) 曹偉 『梅溪集』 卷1, 「宿定慧寺」, “...李少千造□□ 爲睿宗(追增)冥福 遼安本寺 後被盜竊 只有塔尖及施(田土)文券...”

## IV. 거사불교의 확산과 禪宗의 復興

### 1. 거사불교의 확대와 禪宗界의 躍進

고려 중기에 새롭게 등장한 거사불교는 문벌귀족사회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치·사회·종교계를 비롯한 고려사회 전반을 장악하던 문벌귀족세력 내부에서 스스로를 반성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당시 고려사회는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수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문벌귀족 가문에 속하던 거사불교계의 인물들의 사상 역시 개인적인 禪 修行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었다.<sup>148)</sup>

거사불교를 주도하였던 인물들은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불교에 귀의하였다. 그들은 재가자였으며, 당시 사회를 주도했던 문벌귀족의 일원이었다. 이들은 여러 불교계 인사는 물론 당시 성행하고 있던 도교세력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때문에 거사불교는 은둔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자기 반성적인 모습도 갖고 있다. 여러 기록을 통해 거사들의 수행방법과 사상에 도가적 요소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교는 물론 불교, 도교적 성격을 아우르고 있는 거사불교의 등장은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고 있던 교종세력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참선과 선 수행을 중요시 하던 모습은 오히려 선종에 가깝다.

거사불교계의 대표 인물들과 선종 승려들과의 교유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무신 정권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이후 지눌의 조계종 개창에까지 연결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해조국사 담진은 청평거사 이자현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과 밀접한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1107년(예종 2)에 왕사, 9년에 국사를 지낼 정도의 명망있는 선승이었다. 그는 굴산문에 속한 승려로 알려져 있어서, 그의 제자인 탄연·지인·영보 등 역시 굴산문의 승려로 분류되고 있다.<sup>149)</sup> 그가 직접 창건한 전남 승주의 정혜사는 이후 조계종 승려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제6대 沖止 때에는 조계종의 범맥으로 이어졌다.<sup>150)</sup> 이러한 모습은 탄연의 비가 1172년(명종 2)에 건립되어 조계종으로 소속

148) 김두진, 앞의 책, 2009, 194-195쪽.

149) 김영수, 「조계선종에 취하여-오교양종의 일과, 조선불교의 근원」, 『진단학보』9, 1938.

150) 김두진, 앞의 책, 2009, 196쪽.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sup>151)</sup> 즉 고려 중기 사회에서 약화되었던 선종세력은 사굴산문계 선승들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다. 새롭게 등장한 거사불교는 주도했던 인물들의 교유 관계에서 국왕을 비롯한 여러 사상계의 인물들과 폭넓게 확산되고 있어서 그동안 교종의 교세에 눌려 있던 선종계열의 조계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에 충분했다.

고려사회에서 선종세력은 광종대 이후부터 힘을 잃고 지방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이후 고려사회에서 선종세력에 관해서는 가지산문, 굴산산문 두 산문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sup>152)</sup> 즉 고려시대 선종계는 가지산문과 사굴산문 두 산문의 주도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굴산문의 혜조국사 담진과 대감국사 탄연, 가지산문의 원응국사 학일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일의 경우 「청도운문사원응국사비」의 내용에 따르면 대감국사 의천이 해동천태종을 개창할 당시 이에 대한 반감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의천이 왕실의 후원 아래서 종교계의 통합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일은 이러한 종교계의 통합의 반대하고 오히려 선 수행에 철저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sup>153)</sup> 그럼에도 학일이 고려사회에서 왕사를 지냈다는 사실과 왕사를 지낼 당시 운문사에 토지 200결과 노비 500명이 하사되었다는 사실은 교종세력이 장악했던 고려사회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sup>154)</sup>

고려 중기사회에서 선종세력은 사굴산파의 혜조 담진과 그의 제자 대감국사 탄연이 왕실에서 인정을 받으며 왕·국사가 되며 사굴산문의 명맥을 잇는 한편, 원응 학일 역시 왕·국사를 지내며 가지산문의 맥을 이어갔다.<sup>155)</sup> 사굴산문 선승들의 활동이 고려 전기부터 중기까지 확인되며 조계종의 성립에까지 이어지는 반면, 가지산문 선승들의 활동은 고려 중기 원응국사 학일 이후에는 별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고려 후기에 이르러 가지산문의 선승인 普覺國師 一然의 활동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연이 보조국사 지눌의 법계를 이었다는 사실은 고려 후기에 이르러 침체되어 가던 수선사의 법맥을 가지산문에서 이어가고 있음을

151) 김두진, 앞의 책, 2009, 196쪽.

152) 김상영, 「고려시대 가지산문의 전개 양상과 불교사적 위상」, 『불교연구』32, 2010, 92쪽.

153) 김상영, 앞의 논문, 2010, 110쪽.

154) 『雲門寺志』, 『雲門寺事蹟』, 아세아문화사, 1983.

155) 김상영, 앞의 논문, 2010, 112쪽.

알 수 있다.<sup>156)</sup> 즉 가지산문과 사굴산문은 고려 전 시기에 걸쳐 긴밀한 관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거사불교는 고려 중기라는 사회적 배경과 예종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한 다양한 사상의 성장 및 각 인물들 간의 교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왕권을 지키기 위해 기존 문벌세력이 아닌 새로운 신진세력이 필요했던 예종의 지원을 바탕으로 선종계열의 불교세력뿐 아니라 도교세력이 성장할 수 있었고, 고려사회에 공존하고 있었던 유교세력과 기존의 교종세력과의 교유를 통해 거사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의 등장할 수 있던 것이다.

고려사회에서 교종세력에 밀려 선종세력이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산문의 원응국사 학일과 사굴산문의 혜조국사 담진·대감국사 탄연과 같은 두 산문으로 이어진 선종계의 명맥은 거사불교와 사상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지배 정권의 교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조계종의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여기에는 거사불교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상 경향이 등장하였고, 기존 사회의 정치와 종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예종의 정치적 의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상이 성장·교류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 2. 무신정권의 등장과 불교계의 변화

고려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불교계는 건국 초기부터 계속해서 정치세력과 상호관계가 있었다. 교종·선종세력 같은 사원세력의 유지와 성장은 국가권력과 집권계층 간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2세기 후반에 있었던 무신란은 고려사회의 새로운 변화상을 이끌어냈던 중요한 요소였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 구조상의 변화를 병행하였던 것이다.

선종세력이 실질적으로 다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숙종과 예종대에 걸쳐 확장되다가 인종, 의종 무렵의 무인정권이 등장하면서였다. 문벌귀족에서 무인세력으로 집권지배층이 변화함에 따라 고려사회를 주도하던 교종세력이 쇠퇴하고 선종세력

156) 채상식, 『譯註 普覺國尊 一然碑·陰記』, 『신라사학보』14, 신라사학회, 2008, 271쪽. “中統辛酉 承詔 赴京 住禪月社 開堂 遙嗣牧牛和尚”

이 재부흥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상계의 재편이 이루어진 것이다.<sup>157)</sup> 교종세력은 왕실을 비롯한 문벌귀족들의 사상적 지주로서 정치세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들과의 결연을 통하여 막대한 경제력을 지닐 수 있었다.<sup>158)</sup> 그러나 문벌귀족의 몰락으로 인한 교종세력의 약화는 무신정권과 선종 중흥이라는 체제의 개편으로 대체되었다. 정치적인 기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극복에는 새로운 사상체계로서 선종이 중심적 역할에 서게 된 것이었다.<sup>159)</sup>

무신정권과 선종의 결속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선종이 교종에 비하여 수행 방법 상의 단순성의 특징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종세력에 의한 불교계의 폐해를 타파하는 혁신성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종식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사상체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sup>160)</sup> 또한 교종세력은 왕실을 비롯한 귀족세력과 결탁하여 특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무신정권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무신들은 개경의 교종세력을 제압하여 이들과 최소한의 협력조차도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무신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정치계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선종세력에 대한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사상체계를 통한 집권세력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61)</sup> 이와 관련해 불교계의 혁신을 추구했던 신앙 결사체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사상계의 흐름과 변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수선(정혜)결사와 백련결사가 대표적이었다. 신앙결사란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이들로 하여금 함께 수도하고, 사회를 정화하고자 했던 활동이었다.<sup>162)</sup> 즉 무신정권은 선종의 자기혁신적·반성적인 선포로 하여금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교종세력은 실질적으로 무신정권 초기까지도 선종에 비해 우세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명종에 의해 교종계 고승들이 왕실의 대우를 받으며 국가적 불교행사를 주관했다는 사실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무신집권 초기까지는 교종계 고승들이 왕실의 대우를 받고 있었으며, 명종대까지도 교종세

력이 우위를 점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sup>163)</sup> 그러나 무인세력은 이후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선종계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무인세력과 사원세력의 결탁은 여러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무인정변 이후 주도자들 내의 권력 암투에서 李高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난을 도모하면서 사원세력과 결탁하였다.<sup>164)</sup> 이고는 난을 일으키기 위해 惡小와 法雲寺 僧 修惠, 開國寺 僧 玄表 등의 승도 무장세력과 교분을 맺었다. 이렇듯 무신란 직후 전개된 여러 정치적 변화에 따라 사원세력이 특정 세력과 연계되고 있음은 쉽게 파악된다.<sup>165)</sup> 이고와 대립했던 이의방 역시 사원세력과 결탁하는 한편, 문벌귀족과의 제휴를 통해 성장한 교종세력과는 갈등을 빚었다. 『高麗史節要』에는 이와 관련되어 귀법사·중광사·홍호사·홍화사·용흥사·묘지사·복흥사 등의 교종 계통의 2천여 명의 승도와 이의방 세력이 혈전을 벌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sup>166)</sup> 원인은 이의방의 사원정책이 교종계통 사원들의 존립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sup>167)</sup> 이러한 흐름은 당시 불교계의 상황에서 명종 원년에 왕사로 책봉받은 德素는 천태종의 계열이었다.<sup>168)</sup> 또 명종이 祈雨祭를 행한 보제사가 선종계열이었다는 기록<sup>169)</sup> 등은 사원의 중심세력이 기존의 교종계통에서 선종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의방에 이어 정중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경대승, 이의민을 중심으로 한 정권의 교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이들 무인세력 역시 사원의 운용을 통해 경제력을 축적하고자 원찰을 경영하거나 사원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서로의 권력다툼 안에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무신정권기의 집권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사원세력에 대해서는 회유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무인집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원세력의 역할이 여전히 커서 집권자들로 하여

157) 황병성, 「무인세력과 사원세력」, 『광주보건전문대학 논문집』16, 광주보건대학교, 1991, 91쪽.

158) 황병성, 앞의 논문, 1991, 91쪽.

159) 황병성, 앞의 논문, 1991, 103쪽.

160) 황병성, 앞의 논문, 1991, 103쪽.

161) 전영준, 「開京 寺院의 성격과 供役僧」, 앞의 박사학위논문, 2004, 32-38쪽.

162) 진성규, 「고려 후기 신앙결사운동-수선사와 백련사를 중심으로」, 『승가』9, 중앙승가대학교, 1992, 41쪽.

163) 황병성, 앞의 논문, 1991, 97쪽.

164) 『高麗史節要』 卷12, 明宗 元年 정월. “...高有非望之志, 陰結惡小及法雲寺僧修惠開國寺僧玄素等, 日夜宴飲, 因謂曰, ‘大事若成, 汝輩皆登峻班.’ 遂作偽制. 及元子冠, 王將宴于麗正宮. 高爲宣化使, 當預宴, 陰令玄素招致惡小于法雲寺修惠房, 斬馬鬣之, 使各袖刃, 隱于墻屏間, 將作亂...”

165) 김광식, 『고려무신정권과 불교계』, 민족사, 1995, 39-40쪽.

166) 『高麗史節要』 卷12, 明宗 4年 정월. “甲午四年宋淳熙元年, 金大定十四年. 春正月. 歸法寺僧百餘人犯城北門, 殺宣諭僧錄彥宣, 李義方率兵千餘, 擊殺數十僧, 餘皆散去, 兵卒亦多死傷者. 重光弘護歸法弘化諸寺僧二千餘人集城東門, 門閉. 乃燒城外人家, 欲延燒崇仁門, 入殺義方兄弟. 義方知之, 徵集府兵逐之, 斬僧百餘, 府兵亦多死者. 乃令府兵分守城門, 禁僧出入, 遣府兵破重光弘護歸法龍興妙智福興等寺...”

167) 김광식, 앞의 책, 1995, 40-41쪽.

168) 『高麗史』 卷19, 明宗 元年 9月. “九月 癸未 以僧德素爲王師”

169) 『高麗史節要』 卷12, 明宗 2年 11月. “十一月. 幸普濟寺. 自此, 屢幸寺院”

금 사원세력을 포섭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170)</sup> 이에 따라 무인정권들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원세력을 운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직적인 관리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교종계의 일부 사원세력은 집권무인에 항쟁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최충헌이 집권을 하면서 전환을 맞게 되었다. 그는 1196년(명종 26) 4월에 이의민을 제거함으로써 정권을 장악했다. 최씨 정권의 출현은 명종대 정치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고려사회를 장악하고 정치적 안정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의 개혁을 추진했다.<sup>171)</sup> 그러나 이전부터 압박을 받아왔던 교종세력은 그의 개혁에 반발하게 되고 이는 고려 불교계를 재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신들의 집권 이후 교종세력은 문벌세력이 권력을 잡던 시기에 비해 세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세력을 비호하던 명종의 불교정책 등에 힘입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최충헌 정권기에 이르러 개혁되었다. 불교계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자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최충헌 역시 자신의 집권을 위협하는 요소인 교종세력 대신에 지방 불교세력을 강화하는 사원정책을 추진하였다.<sup>172)</sup> 즉 정권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강압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본인의 정권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사상·신앙활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원세력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sup>173)</sup>

최씨 정권의 강화를 위해 사원세력을 개편하고자 한 최충헌의 의도는 그가 명종에가 올린 <奉事 10조><sup>174)</sup>의 일부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권력을 이용한 승려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당시에 빈번하게 발생하던 불교계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즉 최충헌이 지적한 불교계의 모순과 폐단은 왕실을 배경으로 불교세력이 정치에 관여해 사원을 확대하고 지배 계층의 원당이라

170) 황병성, 앞의 논문, 1991, 95-96쪽.

171) 김광식, 앞의 책, 1995, 95쪽

172) 김광식, 앞의 책, 1995, 95-96쪽.

173) 김광식, 앞의 책, 1995, 349쪽.

174) 『高麗史』卷129 崔忠獻傳. “忠獻多殺朝臣, 人心洶懼, 遣使諸道, 慰安之. 忠獻與忠粹, 上封事曰…(중략)…今一浮圖山人也, 常徘徊王宮, 而入臥內, 陛下惑佛, 每優容之. 浮圖者, 既冒寵, 屢以事干, 穢聖德, 而陛下勅內臣, 勿當三寶, 以殺取息於民, 其弊不細. 惟陛下, 斥群兇, 使不跡于宮, 毋得息殺. …在祖聖代, 必以山川順逆, 創浮圖祠, 隨地以安. 後代將相群臣·無賴僧尼等, 無問山川吉凶, 營立佛宇, 名爲願堂, 損傷地脉, 災變屢作. 惟陛下, 使陰陽官檢討, 凡禪補外, 輒削去勿留, 無爲後人觀望.”

는 명목하에 사원들이 난립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sup>175)</sup>

이에 반발한 왕릉사·홍왕사·홍원사·경복사·안양사·수리사 등의 교종세력 승려들이 최충헌을 살해하려는 모의와 대항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sup>176)</sup> 홍왕사 세력의 최충헌 모해사건<sup>177)</sup>을 계기로 최충헌 정권의 사원개편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 이 사건은 명종 폐위 직전의 일로, 그에 대한 반발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다.<sup>178)</sup> 이들 사찰들은 모두 교종계통의 사원으로서 왕실과 관련이 깊은 사찰이었으므로 최충헌의 사원정책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충헌은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반발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裨補思想을 기준으로 재정비하고자 했다.<sup>179)</sup>

한편 최충헌은 선종계통의 불교계를 개편하고 지방의 승려들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교에 대한 관심을 넘어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사회와 민심을 수습하는 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sup>180)</sup> 최충헌이 선종계열의 창복사를 창건하고<sup>181)</sup> 최충헌의 손자 최항이 왕의 명에 따라 그의 진영을 창복사로 옮겼다는 기록,<sup>182)</sup> 선종 출신의 승려로 각지의 禪會를 책임지고 적극 수용하던 지경을 후원하는 모습 등에서 최씨정권과 선종계열 사원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sup>183)</sup> 결국 이러한 후원을 바탕으로 지경이 왕사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sup>184)</sup>은 선종계열에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충헌의 집권기에는 불교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선종중심의 교단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sup>185)</sup> 아울러

175) 김광식, 앞의 책, 1995, 98쪽.

176) 『高麗史』卷129, 崔忠獻傳. “…(高宗)四年, 忠獻父子在其第, 盛陳兵甲戒嚴. 時契丹兵逼近, 令百官守城, 又毀城底人家, 開鑿陞壁. 興王·弘圓·景福·王輪·安養·修理等寺僧之從軍者, 謀殺忠獻, 佯若奔潰者, 馳至宣義門, 急呼曰, ‘契丹兵已至矣. 門者拒不納, 僧徒鼓噪, 斬關而入, 殺門者五六人…’”

177) 『高麗史節要』卷13, 明宗 27年 9月. “秋九月. 忠獻欲往興王寺, 有人投匿名書云, ‘興王寺僧寡一與杜景升謀害忠獻. 乃止.’”

178) 김광식, 앞의 책, 1995, 102쪽.

179) 김광식, 앞의 책, 1995, 103쪽.

180) 김광식, 앞의 책, 1995, 107쪽.

181) 이규보, 『東國李相國集』卷25 「昌福寺談禪榜」 “…公大安三年 得古昌福寺於城之東南 遂拓而新之 今上卽祚之二年 將大闢叢林 闡揚心法…”

182) 『高麗史』卷229, 列傳, 卷42, 叛逆 崔忠獻 崔沆. “…王命移忠獻眞于昌福寺, 怡眞于禪源社, 叅上·叅外·別監及文武官各二十員, 導從如移太祖眞儀…”

183) 이규보, 『東國李相國集』, 「故華藏寺住持 王師定印大禪師追封靜覺國師碑銘」, “…時晉康公當國, 爲上遴選, 凡於兩宗五教, 求可以承當大任者, 無出師右, 遂以師薦焉. 上遣重臣, 請行擗衣之禮, 師上表固讓, 上復遣使, 敦諭至再三, 師不獲已受請…”

184) 『高麗史』卷21, 康宗 2年 6月. “甲申 王受菩薩戒於內殿, 以僧至謙爲王師”

185) 조명계, 앞의 논문, 1988, 149쪽.

사원세력 내부에서 일어나는 개혁운동에도 관심이 있었다. 즉 최충헌은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선종세력의 결사운동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게 되었다. 불교계의 정화를 위해 선종계가 정치권과 결합하는 것을 일종의 선택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다. 최씨정권에 도전하는 사원세력을 탄압하면서 선종중심의 사원 정책을 전개한 것이다.<sup>186</sup> 결국 양자 간의 필요에 의해 최충헌의 정치적 행보와 선종세력의 불교계의 개혁의지가 합해져 고려 중기 정치, 사상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최우 역시 최충헌의 사원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선종세력을 증상으로 흡수하고 이를 통해 정권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문인들을 대폭 기용하고 정권과 불교계의 지지기반을 넓히고자 한 것이다.<sup>187</sup> 이를 위해 수선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화엄종과 법상종 계통의 사찰에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인다.<sup>188</sup> 그러나 최우의 불교계에 대한 지원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선사의 혜심과의 관계이다. 이러한 모습은 『眞覺國師語錄』에 ‘答崔尙書遇’라는 제목의 서편을 보아 둘 사이가 이미 서신을 교환했음을 알 수 있다. 혜심이 최우를 비상한 인물로 추앙하며 적극적으로 칭송하는 모습에서 둘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sup>189</sup> 또한 혜심이 高宗 즉위년에 禪師를 받고, 뒤이어 1216년(고종 3)에 선종의 최고승계인 大禪師에 임명된 사실은 최우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190</sup> 이렇듯 최씨정권과 수선사와의 관계는 최충헌의 불교계 결사운동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시작해 최우의 지원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신정권기부터 약화되던 교종세력은 최충헌 집권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정치권에서 배제되었고, 선종은 교종보다 우위를 차지하면서도 최씨 정권과의 결속을 통해 선종세력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sup>191</sup> 이에 따라 선종계는 당

186) 김광식, 앞의 책, 1995, 352쪽.

187) 최병헌, 「진각혜심, 수선사, 최씨무신정권」, 『보조사상』7, 1993, 185쪽.

188) 『高麗史』, 世家, 卷42, 高宗 12年 8月. “丁酉 以康宗忌日 飯僧二百於內殿 康宗眞殿在玄化寺 忌日 詣寺行香例也 自庚辰以來 國家多故 王不得親詣”; 『高麗史節要』 卷15, 高宗 10年 8月. “八月 崔瑀造 黃金十三層塔及花瓶各一 置于興王寺 共重二百斤”

189) 최병헌, 앞의 논문, 1993, 187쪽.

190) 『東文選』 卷118, 「曹溪山第二世故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眞覺國師碑銘」, “...今上 卽位 制授禪師 又加大禪師 其不經選席 直登緇 秩 自師始也...”

191) 황병성, 앞의 논문, 1991, 101쪽.

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는 사상체계로서 위상을 차지하면서도 최씨 무신정권에 적극 수용되었고, 정권의 지원으로 교세의 확장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 중기 문벌귀족사회의 몰락 이후 무신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종교계의 협조가 여실히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사회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은 정치권력에도 작용했기 때문에 새롭게 집권한 최충헌은 최씨정권에 반발하였던 교종세력이 아닌 선종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 3. 曹溪宗 성립에 끼친 거사불교의 영향

조계종은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대의 종단이다. 조계종의 종헌법에 의하면, 선종을 처음 전래한 道義를 宗祖로 하여 中闡祖로 善照知訥, 中興祖로 太古普愚를 여기고 있다.<sup>192</sup> 조계종의 기원이나 성립·법통·종조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고려시기에 형성된 종파로 중국의 육조선이 고려적인 풍토에서 형성된 선종계열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다.<sup>193</sup>

일반적으로 고려에서 조계종이 발생한 배경에는 문벌귀족과 결합해서 번성했던 교종세력 대신 선종사찰을 후원하여 불교계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한 무신정권과 선종세력의 결합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라 여기고 있다. 즉 무신정권의 정치적 의도와 마찬가지로 선종세력 역시 이전의 불교계의 폐해를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무신정권의 후원 아래서 신앙결사운동을 수행하였다. 이는 기존 개경 중심 불교계의 폐단을 비판하는 산간 불교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sup>194</sup> 결과적으로는 조계종의 성립을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172년(명종 2)에 세워진 坦然的 「高麗國曹溪宗堀山下斷俗寺大鑑國師之碑」와 1185년(명종 15)년 세워진 예천의 「용문사중수기」를 들 수

192) 대한조계종 종단 종조: <http://www.buddhism.or.kr/bbs>.

193) 신진욱, 「최씨무신정권과 조계종파의 관계일고」, 『동국사상』20,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1987, 150쪽.

194) 김두진, 앞의 책, 2009, 228쪽.

있다. 『용문사증수기』에는 대선사 조응이 1125년(인종 3)에 조계선에 중격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지눌의 수선사 개창 이전부터 조계종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조계선은 승과의 조계종 승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시기 이미 조계종이 성립되었으며 국가적으로 공인, 독자적인 승가를 시행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95)</sup> 또한 『楡岾寺事蹟記』에는 “1189년(명종 19)에 조계대선사 익장이 금강산 유점사에 내입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조계종은 지눌에 의해 개창되었다기 보다는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구산선문을 중심으로 한 선종이 선적종으로 통칭되어지다가 의천의 천태종 창립 이후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독립적인 종단체제를 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96)</sup>

고려 중기에 이르러 세력이 약화된 선종세력은 의천의 천태종 개창 이후 선종 내부에서 교선일치를 받아들이는 천태종계의 입장과 순수 선종 자체의 정통성을 주장하던 선적종 세력으로 나뉘어졌다. 이 과정에서 천태종세력이 선종 9산의 승려들을 많이 흡수함으로써 기존의 선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천태종 세력과의 구분을 짓고 재부흥을 꾀하고자 선적종 세력이 조계종으로 개칭하여 불리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조계종은 구산선문을 일컫게 된 명칭으로 볼 수 있다.<sup>197)</sup> 특히 이 시기 이러한 해동천태종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던 모습은 가지산문의 원웅국사 학일에게서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학일과 같은 기존의 계통을 고수한 선적종 세력이 조계종으로 개칭함으로써 그 성격을 견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이란 명칭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몇몇의 비문에서 보일 뿐 이와 관련된 기록이 전무한 실정이다. 즉 조계종은 일찍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려사회에서의 영향력과 존재가 미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종세력이 정권과의 결탁을 통해 불교계와 사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종세력, 즉 조계종 세력이 본격적으로 고려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지눌의 수선사 개창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조계종의 본격적인 부흥은 사굴산문계의 선승인 지눌이 1182년(명종 12)에 보제사에서 개최한 談禪法會에 참석하여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고 이를 계기로 도반

195) 이영호, 「12세기 초기의 한국 선종 상황과 조계종 성립시기 소고」, 『불교학보』5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1, 131쪽.

196) 김영태, 『한국불교사개설』, 경서원, 1988, 294-296쪽.

197) 신진욱, 앞의 논문, 1987, 151쪽.

10명과 함께 결사를 맺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출발하였다. 이후 거조사에서 정혜결사문을 작성하여 호국 기복불교나 우상불교에서 벗어나 정법불교로 복귀하였다. 형식불교를 탈피하여 수행불교로의 진전과 궁중불교, 귀족불교에서 벗어나 대중불교의 건설을 지향하였고, 공보산의 보제사에서 결사 명칭을 수선사로 바꾼 것이다.<sup>198)</sup> 지눌은 정혜결사로 새로운 산문을 성립시켰다고 여겨지는데 공보산 보제사를 조계산 수선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외형상 산문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었다.<sup>199)</sup>

한편, 명칭 변경에는 정치 세력의 영향 또한 미쳤다. 지눌이 정혜사에서 결사할 당시 이미 근처에는 해조국사(해소)가 개창한 정혜사가 존재하였다. 이후 왕명에 의해 지눌의 정혜사는 수선사로 개칭하였는데, 이는 당시 집권자였던 최우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즉 최씨 정권이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종세력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고려 전기부터 이미 조계선이란 명칭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하나의 계파로서 성격을 지니고 성행한 것은 보조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눌에 의해 수선사가 개창되고 이후 조계종이 성립되기까지는 최씨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함께 하였다. 또한 이를 주도한 인물들은 주로 문벌귀족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 서서히 성장해 온 지방사회의 향리와 이해가 일치한 독자층이었다.<sup>200)</sup> 때문에 당시 지방사회의 광범한 지지를 가져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이전 문벌귀족사회에서 불교가 가지던 귀족적이고 보수적인 성격과는 차별화 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도 했다.<sup>201)</sup>

조계종은 왕실과 문신귀족 등과의 결탁을 통해 세속화된 교종세력과는 달리 산간, 지방적 불교로서 독자적인 세계를 개척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무신정권과 결합하게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최씨정권에 이르러서는 무신정권에 대항하는 교종세력의 반발이 빈번했는데, 그들은 본인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불교계를 회유하고자 선종세력을 적극 지원했다. 결국 이전 시기에 교종세력이 정치세력과 결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정치적 후원을 받았던 것은 불교사상이 고려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8) 김두진, 앞의 책, 2009, 226-228쪽.

199) 황인규, 앞의 논문, 2013, 16쪽.

200) 김두진, 앞의 책, 2009, 230쪽.

201) 진성규, 앞의 논문, 1992, 43쪽.

한편, 지눌의 결사운동은 백련결사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쳐 고려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백련사의 결사운동을 주도한 인물인 卍世는 지눌의 수선사 결사에 직접 참가한 인물이면서 영향을 받았다. 즉 요세가 정혜사 결사에 참가했던 경험을 배경으로 백련결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사 이후에도 수선사와 밀접한 연관을 지녔는데, 특히 수선사 2세인 진각국사 해심과 교류하였으며, 수선사의 영향을 받아 교선일치의 경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sup>202)</sup>

즉 고려 전기사회에서 명맥을 유지하던 선종계가 가지산문과 사굴산문에 의한 것이었다면 본격적으로 조계종이라는 하나의 산문으로서 자리 잡는 것에는 지눌의 결사운동에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불교계의 모순을 반성하고 선종세력을 중심으로 일어난 불교계의 정화운동, 즉 결사운동은 결국 조계종으로써 자리가 확고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이를 주도한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무신정권의 지원 역시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03)</sup>

최씨정권의 지원에 대하여 조계종을 개창한 지눌의 경우 종파를 뛰어넘는 순수한 결사운동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하였다. 다만 2대 주지였던 해심의 경우 집정자였던 최우와 교류하는 등 긴밀한 관계하에 있었다. 즉,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최씨정권과 이들의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선종세력은 결사운동을 통해 조계종으로 성립하였고, 무신세력과의 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사세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sup>204)</sup>

이렇듯 무신정권의 비호 아래서 성장한 조계종과 고려 중기 사회에 등장한 거사불교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사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의 조류는 당시 문벌귀족사회의 몰락과 이후 야기된 무인정권으로의 정치적 변화, 곧 교종 중심에서 선종세력이 재부흥함으로써 사상의 흐름과 변화를 예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신정권의 지원으로 선종세력이 성장할 수 있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사불교와 선종세력과의 관계와 이로부터 이어지는 조계종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사불교의 등장은 단순히 정치세력의 변화만을 예고한 것은 아니었다. 거사불교

202) 김두진, 앞의 책, 2009, 248-249쪽.

203) 황병성, 앞의 논문, 1991, 97쪽.

204) 신진욱, 「최씨 무신정권과 조계종과의 관계일고」, 『동국사상』20,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1987, 159-160쪽.

의 선종적 사상의 경향은 조계종 성립에 자극을 주는 역할을 했다. 거사불교의 대표인물인 이자현과 그가 교류를 맺었던 선승들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자현은 굴산문의 승려인 혜조국사와 그의 문인인 탄연·지인 등과 교류를 맺고 있었다. 당시 선종은 굴산파와 가지산파의 두 부류로 분성하였다. 특히 굴산문 승려들의 활동은 수선사계 선종 승려들과 법맥이나 사상에서 연결이 가능하며 조계종의 성립에도 영향을 주었다.<sup>205)</sup> 탄연과 지눌이 계보 상으로 뚜렷한 연결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인물 모두 사굴산파에 속한다. 지눌의 수선사 결사를 비롯해 선종의 부흥에는 사굴산문의 사상이 전승될 수밖에 없으며, 자사상승의 법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206)</sup> 특히 무인정권 초기에 선각국사 도선과 대감국사 탄연의 탐비가 건립되었다는 사실은 선종세력이 이미 왕실에 깊이 인식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한 선종의 재부흥과 관련하여 정치, 사회의 흐름과 변화를 통해 살필 수 있다. 사굴산문의 승려들은 무신정권기 이후 조계종으로 그 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본다면, 선종의 부흥과 조계종 성립에는 거사불교의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고려사회에서 조계종이 하나의 종파로서 성립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 중기 사회에서 미약하게나마 법맥을 이어왔던 혜조와 담진 등을 비롯한 가지산문, 사굴산문 선승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문벌귀족사회와 결탁한 교종세력 등의 폐단을 목격한 일부 문벌귀족의 각성과 그들이 형성한 불교계의 새로운 조류인 거사불교의 등장과 영향으로 인한 자극이다. 셋째, 문벌귀족사회에서 무신정권의 성립으로 정권이 변화함에 따라 집권무인들의 정치적 의도와 결합된 사상계의 변화이다. 이러한 영향은 선종세력의 부흥과 조계종 성립을 촉발시켰다 볼 수 있다. 즉 거사불교로 촉발된 선종세력의 부흥은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정치체제의 안정화를 목적에 둔 무신정권에 의해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으며 조계종의 성립으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고려 사회에서 정치계와 종교계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 볼 수 있는 것이다.

205) 김상영, 앞의 논문, 1988, 74-75쪽.

206) 황병성, 앞의 논문, 1991, 98쪽.



## V. 결론

본고에서는 高麗中期에 새롭게 등장한 거사불교를 통해 고려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즉 사상계의 변화가 고려사회의 주도세력에 끼친 영향과, 문벌귀족들로 인한 모순이 드러나던 고려 중기사회에서 거사불교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려의 문벌귀족이 형성되면서 몰락하기까지의 과정을 고려 불교계의 변화양상과 함께 살펴보았다.

고려 문벌귀족사회는 광종에서부터 현종 때까지 정치체제가 골격을 이루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고려 초기의 정치적 혼란을 거친 후 국가적 성격이 완성되었던 현종대의 정치상황에 이르기까지, 국왕과 함께 체제 정비에 힘을 보탠 중앙귀족의 역할은 강조되었고 그 보상으로써 중앙 관직을 독점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세력들이 문벌귀족으로 형성되었고 혼인 정책으로 귀족 세력을 확장하였다. 특히 왕실과의 통혼을 통해 명문세족들이 형성되었는데 고려의 귀족적 성향이 왕권과 국가체제가 정비와 함께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려사회는 현종, 문종에 이르러 가장 성숙한 귀족사회의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하지만 문벌귀족들의 세력이 강성해지고 고려사회를 장악함에 따라 여러 가지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고려 중기에 이르러 이러한 문벌귀족사회의 성격은 극에 달하여 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예종·인종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측근 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척이었던 이자겸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졌고 정치세력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자겸의 난을 유발시켰다. 결국 이러한 모순들은 묘청이나 무신들의 난으로 이어지는 한편, 지방 토착세력과 향리들의 자제가 중앙 진출 후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문벌귀족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한편 고려의 불교계는 국초부터 설정되었다.太祖는 각 계파의 승려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방 호족과의 결연을 의도하면서도 불교 사상계의 융합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光宗대부터는 왕권강화와 전제정치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교종세력을 중심으로 불교계의 융합사상을 강조하여 선종세력은 지방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특히 文宗대에 이르러서는 불교에 의한 여러 가지 특권 및 특혜, 각종 불교행사들이

절정을 이루던 모습이 지나치게 확장되면서 불교계의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의천이 해동친태종의 개창을 통해 문벌귀족과 연합하여 고려사회를 장악한 불교계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했지만, 그 역시 왕실을 옹호하는 입장으로써 불교사상계를 교종 중심으로 개혁하고자 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거사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의 흐름이 등장했다. 거사불교는 교종, 선종과 같은 정통종파는 아니었으나 기존의 불교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거사불교의 중심인물들은 불교에 심취한 문벌귀족의 일부 세력으로 유학자인 동시에 불교에 귀의한 인물들이었으며 출가자는 아닌 재가자였다. 이렇듯 불교계의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된 원인에는 고려 중기 문벌귀족의 모순을 들 수 있으며 이후 침체되어 가던 선종이 재부흥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들은 여러 불교계 인사는 물론 당시 성행하고 있던 도교세력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거사불교는 은둔적이며, 자기반성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참선과 선 수행을 중요시하던 모습은 선종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려 중기 사회에서 선종세력은 해조국사 담진, 대감국사 탄연과 같은 사굴산문계 선승들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거사불교는 주도했던 인물들의 교유 관계에서 국왕을 비롯한 여러 사상계의 인물들과 폭넓게 확산되고 있어 교세에 놀려 있던 선종계열의 조계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 각종 모순으로 야기된 문벌귀족사회가 몰락하고 무신정권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불교계의 역시 개편되었다. 고려사회의 새로운 주도세력인 무인정권은 선종의 결속을 통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종식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실질적으로 교종세력은 문벌세력이 권력을 잡던 시기에 비해 세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신정권 초기까지 그들 세력을 비호하던 명종의 불교정책 등에 힘입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충헌 정권기에 이르면 그는 자신의 집권을 위협하는 요소인 교종세력 대신에 지방 불교세력을 강화하는 사원정책을 추진했다. 불교계의 모순과 폐단은 왕실을 배경으로 불교세력이 정치에 관여와 사원을 확대하고 이를 이용해 세력을 키우고자 하는 폐해와 지배 계층의 원당이라는 명목으로 사원들을 난립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선종계통의 불교계를 개편하고

지방의 승려들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최충헌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넘어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사회와 민심을 수습하는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종세력은 왕실을 비롯한 귀족세력과 결탁하여 특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무신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고 집권세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문벌귀족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개경의 교종세력 대신의 선종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무신정권기부터 약화되던 교종세력은 최충헌 집권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정치권에서 배제되었고, 선종은 교종보다 우위를 차지하면서도 최씨 정권과의 결속을 통해 교세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선종계는 당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는 사상체계로서 위상을 차지하면서도 최씨 무신정권에 적극 수용되었고, 정권의 지원으로 교세의 확장을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무신정권의 지원은 불교 신앙 결사체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사상계의 흐름과 변화에 중요한 요소로 지눌의 수선(정혜)결사와 요세의 백련결사가 대표적이었다.

이러한 신앙결사 운동은 기존 고려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고 이를 계기로 호국기복불교나 우상불교에서 벗어나 정법불교로 복귀하며, 형식불교를 탈피하여 수행불교로의 진전과 공중불교, 귀족불교에서 벗어나 대중불교의 건설을 지향한 것이다. 또한 지눌의 수선사 결사 이후부터는 외형상 산문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시작하며 조계종의 성립을 가져왔다. 새로운 종파와 같은 혁신적 이념을 갖춘 조계종의 등장은 선종의 또 다른 유형인 천태종과 구분하여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선사 결사 훨씬 이전에 건립된 坦然의 「高麗國曹溪宗堀山下斷俗寺大鑑國師之碑」와 예천의 「용문사 중수기」, 대선사 조응이 1125년(인종 3)에 조계선에 중격하였다는 기록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조계종은 지눌에 의해 개창되었다기 보다는 이전 시기부터 선종의 한 계열로 존재했었으며, 미미하게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과정에 거사불교를 이끌었던 일부 귀족들과의 연결되면서 무신정권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조계종을 후원하는 무신정권의 정치적 선택으로 지눌 이후의 교세 확장과 사상계를 주도하면서 고려 후기사회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왕실과 문신귀족 등과의 결탁을 통해 세속화된 교종세력과는 달리, 산간이나 지방 불교로서 독자적인 세계를 개척하는 성격

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무신정권과 연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고려 중기 문벌귀족사회에서부터 무신정권기로 이어지는 고려사회의 흐름과 변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거사불교는 문벌귀족사회의 몰락에 이어 무신정권의 성립과 같은 정치적 변화의 중심에 있었고, 교종에서 선종의 재 부흥으로 이어지는 사상의 흐름과 변화를 예고한 것이었다. 특히, 거사불교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사굴산문 승려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수선사 계열의 선종 법맥과 사상이 조계종의 성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정치적으로는 무신정권에 의해 강화된 새로운 이념의 사회 적용이며, 사상적으로는 고려 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가지산문과 사굴산문 세력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게 된 것은 국초부터 형성되어 왔던 문벌귀족사회의 모순을 반성하는 일부 귀족들의 거사불교 주창이 핵심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왕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고자 했던 예종의 정치적 선택이 남경 경영과 맞물리면서 유교·도교·불교 세력의 상호 작용으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史料

『高麗史』, 『高麗史節要』, 『高麗圖經』, 『東文選』, 『破閑集』, 『補閑集』, 『西河集』,  
『崔文昌候全集』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조선총독부, 1913.

이능화, 『朝鮮佛教通史』, 신문관, 1918.

허홍식 편, 『韓國金石全文』 中世編, 아세아문화사, 1984.

<文殊院重修碑>, <僧加窟重修碑>, <興王寺大覺國師墓誌銘>, <靈通寺大覺國師  
碑>, <偃鳳寺大覺國師碑>, <斷俗寺大鑑國師碑>, <松廣寺普照國師碑>, <廣智大  
禪師之印墓誌銘>, <清道 雲門寺 圓應國師碑>, <眞樂公文殊院記>, <李子淵墓誌  
銘>, <尹彦頤墓誌銘>, <月南寺址眞覺國師碑>, <軍威麟角寺普覺國師碑>

### 2. 研究著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74.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16, 국사편찬위원회, 2013.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6.

\_\_\_\_\_, 『고려사상사 산책』, 국민대학교출판부, 2009.

김용선, 『역주 고려묘지명집성』上,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김영태, 『한국불교사개설』, 경서원, 1988.

모종감, 『중국도교사』, 예문서원, 2017.

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1985.

\_\_\_\_\_, 『고려사회와 문벌귀족가문』, 경인문화사, 2003.

이병욱, 『인물로 보는 한국의 불교사상』, 한국불교원전연구회, 예문서원, 2004.

정제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최병현, 『대각국사 의천의 화엄사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_\_\_\_\_, 「진각해심, 수선사, 최시무인정권」, 『보조사상』7, 1993.

허홍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_\_\_\_\_, 『고려중세불교사연구』, 일조각, 1994.

### 3. 研究論文

고영섭, 「고려 광종대 불교 교단의 통합과 법안선의 도입」, 『선학』4, 2003.

강석근, 「거사불교의 관점에서 본 이규보의 행정과 문학」, 동국어논문집7, 동국대학  
교 국어국문학과, 1997.

권혁진, 「이자현의 시세계」, 『한자한문교육』13,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4.

김광식, 「고려 숙종대의 왕권과 사원세력」, 『백산학보』36, 백산학회, 1989.

김두진, 「왕건의 승려결합과 그 의도」, 『한국학논의』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81.

\_\_\_\_\_, 「고려 광종대 법안종의 등장과 그 성격」, 『한국사학』4, 한국정신문화연구  
원, 1983.

김병인, 「김부식과 윤언이」, 『역사학연구』9, 전남사학회, 1995.

\_\_\_\_\_, 「고려 예종-인종대 정치세력 비교연구」, 『역사학연구』17, 호남사학회, 2001.

\_\_\_\_\_, 「고려 예종대 도교 진흥의 배경과 정치세력」, 『역사학연구』20, 전남사학회,  
2003.

김상영, 「고려 예종대 선종의 부흥과 불교계의 변화」, 『청계사학』5, 청계사학회,  
1988.

김영수, 「오교양종에 대하여」, 『진단학보』8, 진단학회, 1937.

\_\_\_\_\_, 「조계선종에 취하여-오교양종의 일파, 조선불교의 근원」, 『진단학보』9, 진단  
학회, 1938.

\_\_\_\_\_, 「고려 중-후기 선종계의 선문인식」, 『한국선학』9호, 한국선학회, 2005.

김창현, 「고려 중기 윤언이의 사상과 파주 금강제」, 『기전문화연구』31, 경인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04.

\_\_\_\_\_, 「고려 중기 인주이씨와 불교경향」, 『인문과학연구』25, 성신여자대학교인문  
과학연구소, 2007.

김철웅, 「고려 예종대 광여의 활동과 도교」, 『한국인물사연구』16, 한국인물사연구

소, 2011.

김홍삼, 「청평사와 고려 사회구조」, 『강원문화연구』23,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4.

노권용, 「고려 불교사상의 전개와 성격」, 『한국종교사연구』4, 한국종교사학회, 1996.

민현규, 「月南寺址 眞覺國師碑의 陰記에 대한 一考察」, 『진단학보』36, 1973.

박광연, 「고려시대 오교양종의 성격 재검토 : 금석문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3, 2016.

박용진, 「의천의 송 천태교학 교류와 천태교관」, 『한국학논총』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변동명, 「11세기말 12세기초 은원층의 활동과 사상경향」, 『역사학연구』51, 2013.

서경수, 「고려의 거사불교」, 『한국불교사상사-승산 박길진박사 화갑기념』, 승산 박길진 박사 화갑기념 사업회, 1975.

신규탁, 「고려 중기 거사불교와 이자현의 선사상」, 『강원문화연구』23,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4.

신진옥, 「최씨 무신정권과 조계종과의 관계일고」, 『동국사상』20,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1987.

유영봉, 「고려전기 ‘처사방’을 통해 본 은일의 추구 경향」, 『한문학보』19, 우리한문학회, 2008.

이병욱, 「의천, 소현, 이자현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국종교사학연구』10, 한국종교사학회, 2002.

이영호, 「12세기 초기의 한국 선종 상황과 조계종 성립시기 소고」, 『불교학보』5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1.

전기웅, 「고려 경종대의 정치구조와 시정전시파의 성립기반」, 『진단학보』59, 1985.

전영준, 「고려 예종대의 사찰 창건과 승도 동원-〈혜음사신창기〉를 중심으로」, 『진단학보』97, 진단학회, 2004.

조명제, 「고려후기 계환해 능엄경의 성행과 사상사적 의미」, 『부대사학』12, 1988.

\_\_\_\_\_, 「고려 중기 거사선의 사상적 경향」, 『한국선학』4, 한국선학회, 2002.

\_\_\_\_\_, 「고려 중기 거사선의 사상적 경향과 간화선 수용의 기반」, 『역사와 경계』

44, 부산경남사학회, 2002.

조용현, 「이자현의 능엄선 연구」, 『종교연구』12, 한국종교학회, 1996.

진성규, 「이승휴의 불교관」, 『중앙사론』8, 중앙사학회, 1995.

\_\_\_\_\_, 「고려후기 신앙결사운동-수선사와 백편사를 중심으로」, 『승가』9, 중앙승가대학교, 1992.

채상식, 「譯註 普覺國尊 一然碑·陰記」, 『신라사학보』14, 신라사학회, 2008.

\_\_\_\_\_, 「의천의 불교통합 시도와 그 추이」, 『한국민족문화』57, 2015.

최병현, 「고려 중기 이자현의 선과 불교의 성격」, 『김철준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김철준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간행준비위원회, 1983.

\_\_\_\_\_, 「대각국사 의천의 도송활동과 고려·송의 불교교류」, 『진단학보』71-72, 1991.

최영성, 「譯註 海美 普願寺 法印國師 寶乘塔碑銘 并序」, 『동양고전연구』22, 동양고전학회, 2005.

한성열, 「고려 후기 무신정권과 선종의 연계성」, 『정토학연구』13, 한국정토학회, 2010.

황병성, 「무인세력과 사원세력」, 『광주보건전문대학 논문집』16, 광주보건대학교, 1991.

황인규, 「고려전기 사굴산문계 고승과 선종계」, 『한국선학』17, 한국선학회, 2007.

황인규, 「고려시대 조계종의 성립과 전개」, 『역사와 교육』17, 역사와 교육학회, 2013.

4. 學位論文

김상영, 「고려 예종대 선승의 활동과 불교계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이민정, 「고려시대 ‘거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토니오 푸지오니, 「고려시대 범상종 교단의 추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전영준, 「高麗時代 供役僧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